

6월 Market Index			
↓ 코스피	6941.39	↑ 코스닥	919.92
	(-62.35)		(+26.63)
↓ 금리 (한국은행)	3.933	↓ 환율 (한·달러)	1342.30
	(-0.004)		(-1.70)

금리의 역습... 韓, '채권자경단' 감시망 오르나

美 채권금리 5%대 '복병'

美 이어 日·英도 국제채금리 폭등
韓도 10년물 금리 4% 훌쩍 넘어
국제발행 증가 '투매' 이어지고
연준 기준금리 인상접쳐 '악재'

빌 클린턴 집권 2년 차였던 1994년, 미국 10년물 국제채 금리는 연초 6.2%에서 연말 8.2%까지 치솟았다. 국제채 금리가 뛰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복지 확대와 인프라 투자 등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는 클린턴 정부의 계획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재원 조달을 위해 국제 발행이 쏟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란 불안이 채권 투매로 이어졌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며 '공포의 연쇄 반응'이 일어났다.

94년의 악몽이 재현될까. 시장 일각에서는 국제 투매로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채권자경단' 무대가 미국을 넘어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도 더이상 안전 지대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4월 한국 국제채가 세계국제채지수(WGBI)에 편입된 후 42조원 규모의 글로벌 자금이 국내에 유입됐다. 나라빛은 1400조원에 달하고 있다. AI(인공지능) 고빈도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채권자경단의 활동이 '순간적 유동성 증발(Flash Freeze)'을 불러올 수 있는 환경이다.

◆세계 금융시장 흔드는 미국

5일(현지시간) 미국 10년물 국제채금리는 장중 5.347%를 찍었다. 2002년 4월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30



오늘 누리호 5차 발사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5차 발사를 하루 앞두고 발사대에 기립·고정되는 과정. <관련기사 L4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년물 금리도 장중 5.702%까지 상승했다. 일본 30년물 금리는 1999년 발행 이후 처음으로 4%를 웃돌고 있고, 일본 10년 만기 국제채 금리도 3%를 넘어서는 등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영국 30년물 국제채금리는 5일 장중 6.02%까지 올라 1998년 이후 처음으로 6%를 넘어섰다가 5.945%로 거래를 마쳤다. 프랑스 10년물 국제채금리는 4.917%에 마감해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역시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크게 웃도는 9.2%를 기록했지만, 과열된 경기를 가

라앉치고, 뛰는 물가를 누르기 위해 한국은행이 10월 또는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연 3.0%인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6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연 4.369%까지 뛰었다.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채권자경단(Bond vigilantes)'의 귀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채권자경단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과도하게 확대할 경우 국채를 투매(금리 급등)해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투자자를 의미한다. 조직 형태는 아니지만, 소규모 헤지펀드나 채권투자가 집단으로 행동해 시장에 미치는 영

향이 크다. 월가의 손잡는 투자전략가였던 에드 아테니가 1983년에 처음으로 쓴 단어다.

월가의 베테랑 전략가 에드워드 아테니 아테니 리서치 대표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채권자경단"의 복수일 수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제로 금리에 가깝게 쌓아 올린 그 수많은 부채를 이제는 현재의 고금리로 차환(리파이낸싱)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라고 했다.

<2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저축은행 해킹... 고객 불안 확산 '집단 대응' 움직임

금융사·온투업 연쇄 해킹피해 발생
일부 고객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KB국민·하나은행 등 전수점검 나서

금융권 해킹 사고로 금융소비자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2금융권의 경우 주부,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이 주요 고객인 만큼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및 2차 피해를 우려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예가람·웰컴저축은행·현대캐피탈 등 7개 금융사와 피에프씨티(PFCT)·모우다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서 해킹 피해가

발생하면서다.

특히, 담카페와 소상공인 카페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2금융권까지 고객 정보 유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주부 입장에서 너무 불안하다", "민증 바뀌야 하나", "자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니까 더 이상 개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집단 대응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고객들은 지난 2일 '신한은행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를 개설하고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해당 카페 운영자는 "은행 측은 피해가 확인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했으나 무엇을 피해로 볼 것인지,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아직 아무 말이 없다"면서 "같은 처

지인 사람들끼리 정보를 나누고자 카페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운영하는 카페에도 "은행 유출 건도 진행하느냐"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업계를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소비자 한 명이 여러 기업의 유출 사고에 동시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한편, 금융사들은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공격에 사용된 악성 인터넷주소(IP)를 차단한 뒤 추가 보안 취약점을 점검했다. 하나은행도 악성 IP를 차단하고, 시스템을 전수 점검하면서 추가 침투 여부를 점검했다.

저축은행권도 피해 고객 보호 조치에 나섰다. 예가람저축은행은 해킹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고, 외부 인터넷 주소(IP)를 차단했다고 안내했다. 현재는 고객 피해구제를 위한 고객센터를 운영 중이다.

예가람저축은행 관계자는 "정보유출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접수를 받고, 사실 확인을 한 다음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유출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을 해야 할 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웰컴저축은행도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해킹 피해 사실을 공지한 뒤 피해 구제를 위한 전용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여야, 대미투자·호남반도체 공방...與 "정보유출 고발" vs 野 "호남 일극성장"
▲김정관 "알래스카 LNG, 사업성 낮았지만 중동전쟁 후 전략적 가치 생겨" /사진 뉴시스

▲국감장 누빈 中 휴머노이드...“韓 피지컬AI 투자 턱없이 부족”
▲추미애 '12억 관사'·김승원 '가족 조합' 경찰 수사 속도

▲경찰, '암살자(들)' 고발 종로서 배당...“배우 협박엔 법적 조치”
▲'성범죄 기소유예' 경찰관 채용 논란...서울청장 "법 개정 논의"

LG전자, 전장·공조 수주 이어져… 내년 매출 100조 기대감

북미서 5GW 대규모 냉각사업 수주
유럽 등 전장사업 실적 개선세 지속
증권가 내년 연결매출 102.3조 전망

LG전자가 전장에 이어 공조에서도 대형 수주를 확보하면서 내년 사상 첫 매출 100조원 돌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장 사업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가운데 AI 데이터센터 냉각 사업까지 대규모 수주를 확보하면서 가전과 TV에 집중됐던 사업 구조가 B2B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 미국법인 은 지난 5일 북미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업 에어 컨트롤 콘셉트와 냉각 솔루션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에 들어서는 AI 데이터센터에 대형 냉방 설비인 칠러를 공급한다.

공급 규모는 총 5기가와트(GW)로 LG전자가 확보한 AI 데이터센터 냉각 계약 가운데 역대 최대다.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최대 5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여러 해에 걸쳐 냉각 설비



LG전자는 르노그룹의 '뉴 트래픽 이테크 일렉트릭(New Trafic E-Tech Electric)'에 차세대 통합 콕핏 솔루션을 공급한다. /LG전자

를 공급하는 장기계약이다. LG전자는 칠러에 이어 서버의 열을 직접 식히는 액체 냉각 장비까지 공급 제품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냉각 수주도 확대되고 있다. LG전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관련 수주액 6000억원을 넘어섰다. 회사는 연말까지 누적 수주액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당초 2027년 말로 잡았던 칠러 사업 매출 1조원 달성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액체냉각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LG전자는 600킬로와트(kW)급을 시작으로 1메가와트(MW), 2.5MW급 냉각수분배장치(CDU) 인증을 순차적으로 확보했으며 현재 4MW급 제품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CDU는 서버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를 공급하고 회수하는 장비다.

냉각 사업은 전장보다 수주가 매출로

전환되는 기간도 짧다. 양승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6일 AI 데이터센터 냉각 사업의 수주잔고가 연말 약 3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장은 수주 이후 매출 인식까지 2~3년이 걸리는 반면 냉각 사업은 약 8개월 가량 소요돼 내년부터 기존 수주 물량의 매출 반영과 신규 수주가 동시에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전장 사업도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 LG전자는 약 100조원의 전장 수주잔고를 확보한 가운데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 판매 확대와 원가구조 개선으로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냈다. 수익성 개선은 연간 실적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신증권은 올해 전장 사업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56.6% 증가해 매출 증가율 전망치인 11.9%를 크게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LG전자는 전장 사업을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날 회사는 르노그룹의 유럽 첫 상용 SDV에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로 제어하는 통합 콕핏 솔루션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LG전자는 북미와 아시아 등 주요

완성차 업체로 SDV 솔루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장과 공조 사업이 확대되면서 LG전자의 B2B 매출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2분기 전체 매출에서 B2B가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집계됐다. 전장과 공조를 중심으로 B2B 사업을 확대하면서 가전과 TV 등 소비자대상 사업에 집중됐던 매출 구조도 달라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B2B 사업 확대는 내년 전체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29일 LG전자의 내년 연결 매출을 102조3360억원으로 전망했다. 전망대로라면 LG전자는 내년 처음으로 연간 매출 100조원을 넘어선다.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 사장은 “LG전자의 고효율 칠러, 고성능 액체냉각 솔루션을 비롯한 차별화된 기술력과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공급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냉각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마땅한 투자처 없다”… 은행 요구불예금 급증

지난달 말 675.5조… 한달 새 1.6%↑
자산시장 관망세·기업자금 유입 영향

5대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이 한 달 전보다 1.6% 증가했다. 국내 주식시장이 방향성을 찾지 못하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은행으로 몰린 영향이다. 요구불예금은 예금주가 원할 때 언제든지 조건없이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을 말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675조 524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과 비교해 1.6% 급증한 규모다.

이처럼 요구불예금이 늘어난 배경에는 증시정체와 맞물린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자리잡고 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기 보다 향후 투자 기회를 기다리며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기업 자금 유입도 증가폭에 영향을 미쳤다. 수출 호조에 따른 결제대금 유입과 함께 기업들이 운전자금 등 단기 유동성



자산시장 관망세가 확산하며 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Chat GPT 생성 이미지

을 확보하면서 법인 자금이 요구불예금으로 들어온 것으로 풀이된다.

자산시장의 관망 심리는 증시지표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대금자금 성격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6월 4일 139조6048억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내림세를 이어갔다. 이달 1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104조6376억원으로 6월과 비교해 25% 감소했다. 반면 정기적금 잔액은 늘었다. 5대 은행의 9월 말 정기적금

잔액은 46조2749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66% 증가했다. 증가액으로는 약 1조 2000억원에 달한다. 월간 증가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9월(1조2157억원) 이후 1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요구불예금과 정기적금이 동시에 늘었지만 자금이 움직인 배경에는 차이가 있다. 증시의 방향성이 불투명해지자 일부 투자자들은 향후 투자 기회를 기다리며 요구불예금에 자금을 대기시키는 반면, 당장 투자 계획이 없는 자금은 높아진 예·적금 금리를 활용해 확정금리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하기보다 일단 유동성을 확보한 채 시장 상황을 지켜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당장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요구불예금에 대기시키고, 일정 기간 사용 계획이 없는 자금은 금리가 높아진 예·적금으로 옮기는 등 자금 운용이 분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사유리 기자 yul115@



metro

올 들어 30년 만기 국고채 금리 1%p 급등… 빛의 악순환 우려

》1면 ‘금리의 역습…’서 계속

◆한국 ‘채권 자경단’ 안전지대 일까

시장에서는 한국도 ‘채권 자경단’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않은 환경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도에 82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일찌감치 예고했다. 국가 채무는 작년 한 해에만 129조 원이 늘며 13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말엔 1412조8000억원으로 7년 만에 2배로 불어날 전망이다.

채권 시장도 지출확대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정부가 발행한 3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역대 최고 수준인 4.5% 안팎까지 올랐다. 올 들어서만 1%포인트 넘게 급등한 것이다. 국채 금리 상승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늘리고 가계 주택담보대출 등 금리도 끌어올릴 수 있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위축돼 경기에도 부담이 되고, 미래 이익의 현재 산정 가치가 낮아지면서 성장주와 기술주 등 증시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적자 국채 의존

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빛의 악순환 고리에 빠질 수 있다. 실제로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선진국들이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에 지급한 이자는 3조3000억달러를 넘어섰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고금리 환경에서도 성장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현상이지만 고금리 장기화 리스크를 무시하기 어렵다”며 “금리는 지금보다 낮아질 필요가 있으며 그 추매제는 성장동력화보다는 물가, 즉 유가 안정에서 찾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IMF EBA 개편, 韓 경상수지 불리하게 작용”

(대외균형평가)

한은 “저축성향 등 특수성 반영 못 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상수지 평가 모형 개편으로 우리나라의 적정 경상흑자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1%포인트(p)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령층의 높은 저축성향과 빠른 고령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초과 흑자’가 크게 산출됐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6일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금융연구팀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제2026-26호 ‘IMF EBA 모형 개편이 우리나라 경상수지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IMF는 지난 7월 대외부문 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의 2025년 경상수지가 중기적 균형 수준을 ‘상회’한다고 평가했다. 전년 대체로 부합’에서 두 단계 바뀐 평가로, 흑자가 적정 수준보다 크다는 의미다.

IMF의 대외균형평가(EBA) 모형은 경제구조와 정책 등을 고려해 적정 경상수지를 추정한다. 경기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경상수지에서 적정 수준을 뺀 차이를 ‘경상수지갭’이라고 부른다.

2025년 한국의 실제 경상흑자는 GDP 대비 6.6%로 전년 5.3%보다 커졌다. 반면 모형이 산출한 적정 흑자는 4.7%에서 3.3%로 낮아졌다. 이에 모형상 경상수지갭은 0.8%에서 3.1%로 확대됐다. IMF가 고령화 등을 추가로 보정한 뒤 최종 평가한 경상수지갭은 2.5%였다.

김민 한은 국제금융연구팀 과장은 다른 조건을 같게 두고 인구구조 부문을 개편하기 전으로 되돌린 모형과 새 모형을 비교했다. 그 결과 개편으로 한국의 적정 흑자가 1.1%p 낮아졌다. 분석대상 26개국 중 하라푼이 가장 컸다. 개편에 따른 경상수지갭 확대분 1.1%p 중 94%에 해당하는 1.03%p는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잔차’의 증가였다. 김 과장은 이를 재정·외환 등 정책요인보다 모형의 한국 경상수지 설명력이 낮아진 결과로 해석했다.

보고서는 한국 고령층의 저축과 근로행태가 모형의 기본 가정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모형은 은퇴한 고령층이 저축을 할어 소비한다고 가정하지만, 2025년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평균저축성향은 32.2%로 전체 평균 30.9%보다 높았다. 평균저축성향은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하고 남은 비중이다.

65세 이상 고용률도 2025년 39.5%로 OECD 38개국 평균 14.1%를 크게 웃돌았다. 고령가구 자산의 83.1%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어서 저축을 할어 소비하기 어려운 구조도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빠른 고령화에 대비한 저축 수요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개편 모형은 노후 대비 저축을 설명하는 변수에서 ‘20년 후’ 고령인구 비중을 ‘현재’ 비중으로 바꿨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4~2029년 4.9%p 높아질 전망으로, 분석대상국 중 위값 상승폭의 두 배를 넘는다. 낮은 공적연금 급여 수준과 기금 소진 우려도 근로세대의 노후 대비 저축을 늘리는 요인이다.

내년에는 순대와자산에서 과거 초과 경상흑자·누적분 등을 털어내는 추가 개편이 예정돼 있다. 연구는 2012년을 누적 기준으로 삼으면 이 개편만으로 한국의 2026년 경상수지갭이 0.74%p 커질 것으로 추정했다. 순대와자산 감소 영향까지 반영한 적정 흑자는 GDP 대비 2.2%였다.

올해 경상흑자를 GDP 대비 16.0~23.3%로 가정한 세 시나리오에서는 경상수지갭이 13.8~21.1%로 계산돼 모두 ‘상당폭 상회’ 구간에 들어갔다. 다만 이는 경기변동 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조건부 계산이다. 최종 개편안과 IMF의 보정에 따라 실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김민 한은 국제금융연구팀 과장은 “우리나라 특수성을 감안한 설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덜 싸아 더 만든다’… HBM 공급부족·원가상승 대안으로

엔비디아 중심 HBM 높이 낮추고 12단 대신 8단 제품 확대 움직임
삼성·SK, 엔비디아향 8단 비중 확대
HBM4E·HBM4 제품군 개발 박차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둘러싼 고객사들의 요구가 세분화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응 폭도 넓어지고 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HBM 높이를 낮추고 12단 대신 8단 제품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양사는 고객 수요에 맞춰 제품군을 다변화하는 모습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HBM 공급사에 제품 높이를 국제반도체표준협회의 기구(JEDEC) 표준보다 낮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HBM3E와 HBM4의 최대 패키지 높이는 각각 720마이크로미터(μm), 775μm지만 엔비디아는 실제 공급 제품에 이보다 엄격한 높이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HBM 적층 단수에서도 고객사 요구가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출하한 HBM4E 12단 제품 모습.

/삼성전자

달라지고 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HBM48단 주문이 확대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엔비디아향 공급에서 8단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고객사 주문에 따라 현재 8단 제품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주문형반도체(ASIC) 업체들이 HBM 공급 부족과 시스템 원가 상승에 대응해 기기당

탑재 용량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도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 울트라’에 12단 HBM4E뿐 아니라 8단 HBM4E와 12단·8단 HBM4까지 평가 범위를 넓힌 상태다.

8단 수요 확대는 HBM 시장의 수요 둔화보다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크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정된 웨이퍼에서 적층 단수를 낮추면 같은 생산량으로 더 많은 HBM 스택을 확보할 수

있다. 트렌드포스는 HBM 비트 출하량이 2027년 전년 대비 50~60% 늘어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한정된 웨이퍼에서 생산할 수 있는 다이 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 고객사들이 적층 단수를 낮추는 대신 더 많은 HBM 물량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8단 비중이 늘어난다고 해서 HBM 판매량이 줄거나 메모리 업체의 수익성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8단 전환이 메모리 업체의 평가 하락으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트렌드포스는 2027년 8단 HBM의 기가비트(Gb)당 판매 가격이 12단보다 10~20%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8단은 전체 용량이 작아 고객사가 GPU 한 개에 투입하는 HBM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베이스다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에 분산돼 Gb당 가격은 높아진다.

트렌드포스는 HBM4 비중 확대와 2027년 하반기 HBM4E 출하 증가 등을 반영해 내년 HBM 혼합 평균판매가격(ASP)

이 올해보다 121%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동일 제품의 가격 상승률이 아닌 제품 구성 변화가 반영된 평균 가격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8단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고단 제품 개발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HBM4E 제품군을 최대 16단·64기가바이트(GB)까지 확대하고 16단 이상 제품을 위한 하이브리드 구리 본딩(HCB)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48GB 16단 HBM4를 개발하는 등 고단 제품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차세대 고단 HBM에 적용할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개발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AI 서비스가 초고용량 HBM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 만큼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필요한 용량에 맞춰 HBM을 구성하려는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비중국산 희토류에 프리미엄… 韓, 생산망 다변화 나서

북미 사마륨 산화물 가격 중의 10배
고려아연, 美 기업과 합작 공장 구축
LS에코에너지, 베트남서 연내 시양산

중국의 수출 통제와 미국의 국방 조달 규제로 비중국산 희토류 확보 경쟁이 커지면서 북미에서 중국산 대비 최대 10배의 ‘공급망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 이 같은 공급망 재편 속에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국내 기업들도 미국·베트남에서 희토류 산화물 분리·정제와 금속 생산 등 비중국 밸류체인 구축에 나서고 있다.

6일 S&P글로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북미 시장에서 사마륨(Sm) 산화물은 kg당 1000달러, 터븀(Tb)은 7500달러, 디스프로슘(Dy)은 3250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3월 비중국산 가격 평가를 시작한 이후 각각 470% 이상, 53%, 171% 상승했다.

같은 날 중국산 수출가격은 사마륨 산화물 kg당 100달러, 터븀 1005달러로 북미 가격이 각각 10배, 7배 이상 높았다. 중국이 지난해 4월 사마륨·디스프로슘·터븀 등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면서 반년째의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NdPr)은

북미에서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미국의 국방 조달 규제도 강화된다. 미국은 중국·러시아·이란·북한산 주요 물질의 국방 조달을 제한하며, 2027년부터 사마륨·코발트(SmCo)·네오디뮴-철-붕소(NdFeB) 영구자석의 원료 채굴·분리·정제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규제를 확대한다.

국내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분리·정제와 금속 생산을 미국·베트남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다만 사업 단계와 품목이 달라 산화물 가격 상승이 각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미국 알타 리소스 테크놀로지스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자회사 페달포인트 사업장에 폐영구자석 기반 희토류 생산시설을 구축한다. 2027년 상업 가동을 목표로 연산 100t 규모의 고순도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 산화물을 생산할 계획이다. 북미에서 가격이 급등한 디스프로슘·터븀도 포함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생산이 원활할 경우 사업 경제성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평가다.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호찌민 공장에 116억원을 투자해 연산 240t 규모의 사마륨 금속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오는 12월 시양산에 들어간다. 호주 라이너스의 비중국산 희토류 원료를 현지에서 금속으로 가공해 LS전선 등 그룹 내 영구자석 사업과 연결하는 밸류체인 구축이 우선이다. 외부 판매는 내부 수요 충족 후 여유 물량이 발생하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지난 2024년부터 산학협력으로 희토류 금속 생산기술을 확보해 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국 리엘레멘트와 2억달러를 투자해 연산 6000t 규모의 희토류 분리·정제 합작사업을 추진한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metro

우리사장님들 모두~ 잘됐으면 좋겠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복리 이자
목돈 마련

신속한
비대면 대출

공제금
압류 금지

홍보대사
김나희

홍보대사
탁재훈

KBIZ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 심의필 제26-025호(2026.03.06 ~ 2027.03.01)

가입문의

1666-9988

* 취급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정부, 24억弗 대미투자 이행... “팩트시트 내용대로 공개”

재정경제부

野, 국회 동의 절차 여부 질문에
이형일 부총리 “국회 보고 절차 거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에
재경차관 “정치적 고려 없어”

정부가 한미 간 대미투자 합의에 따른 집행금 일부를 미국 측에 부쳤다고 밝혔다. 미 텍사스주에 발전소를 건립하는 투자로 총 223억달러가 소요된다. 송금한 돈은 총 투자금의 10.7%인 24억 달러(3조2000억원)로 1차 이행 명목으로 추정된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국회의 재경부 국정감사 도중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부총리는 “9월30일과 10월1일 각각 팩트시트(공식 설명자료)를 한·미가 공동으로 발표하고 나서 10월1일 24억달러가 (미국으로) 송금됐는가”라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질의에 “네”라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투자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았는지 따져 물었



(왼쪽부터)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대영 1차관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다. 그는 “상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사전 보고이지만, 상업성이 없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런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국회 보고 절차를 다 거친 다음 팩트시트에 담았다”고 답했다. 또 텍사스발전소 건립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충족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미 양국은 대미투자의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에 6.3기가와트(G

W)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세우는 내용의 이른바 ‘프로젝트 스타’를 확정했다.

알래스카주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다. 임 의원은 “‘프로젝트 노스’(알래스카 LNG 개발)의 경우 540억달러 규모를 두고 양국이 서로 엇갈린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저희는 팩트시트에 있는 내용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미 행정부가 밝힌 세부내용과 다를 수 있

다는 의혹에 대한 일축이다. 또 “(프로젝트 노스는)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다. 상업 장려성도 저희가 다 따져봐야 한다”며 “상업 장려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비판하는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에 대한 세간의 평은 지선(지방선거) 앞두고 주식시장 띄우기 프로젝트였다”며 “전반적으로 위험성에 대해 식견이 있을 거 같은데 (올해 1월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발전방안 회의에서) 의견 개진을 안 한 건가”라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그날은 여러 가지 상품 제안이 많았기 때문에 한 상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며 “투자자 손실 문제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권대영 제1 차관은 “규제 차익 측면에서 위험성을 알고 있지만 이 제도가 국내에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거로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규제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는 것이 결과적으로 정책 의도와 달리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 및 상장 시점이 6·3 지방선거 직전으로 조기화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주장에 따르면 당초 하반기(3~4분기) 예정이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일정이 2분기로 앞당겨졌다. 이후 상장일이 5월22일로 정해졌다가 5월27일로 변경됐다.

이어 “5월27일은 지방선거 본투표 일주일 전”이라며 “정치적 요소를 넣어서 급하게 서둘러서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동시에 심사를 벌여 전체 절차가 29일 만에 마무리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권 차관은 “결과적으로 국민께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어떤 정치적인 고려나... 또 정책을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업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꼭 드린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서남권 반도체 부지, 정부는 제안하고 기업이 최종 결정”

산업통상부

野, 부지 선정 공정성 진실공방 추궁
김정관 “비호남도 후보지 제안했었다”
LNG 프로젝트, 중동전쟁 후 가치 생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 부지 선정 논란과 관련해 “기업이 생산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는 제안을 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 었다”고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메가프로젝트 부지 선정 과정이 공정했느냐’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이 “기업이 서남권을 부지로 먼저 제안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기업이 최종적으로 서남권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기업은 일관되게 특

정한 바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지난 1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담당 부서는 기업이 먼저 호남 투자 의사를 전해왔다고 답했다”며 담당 부처와 장관의 설명이 엇갈리는 ‘진실 공방’ 양상이라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도 마찬가지로 기업도 다양한 부지를 고려하고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호남 지역도 후보지로 포함해 기업에 제안했었다고 밝히며, 자료 불일치 지적에 대해선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미 대미 투자 및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의 경제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타당성 검증 문제를 지적하자, 김 장관은 “사업성이 낮아서 그동안 안 됐던 것은 맞다”면서도 “중동전쟁 이후 전략적 가치가 새롭게 생겼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 중동에서 LNG가 원활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걸프만에서 들어오는 물량도 파나마운하가 아니라 희망봉을 돌아서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그 LNG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전략적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산업부 내부 문건에서 확인된 한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1·2·3호 투자 타당성 분석 외부용역의 대상 사업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2호, 3호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김 장관은 국감 모두발언을 통해 대미 투자를 발판 삼아 국익을 최우선으로 통상·산업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장관은 “한미 양국이 공동 발표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후속 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해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로 만들 것”이라며 “수출 저변을 넓혀 수출 5강 도약을 달성하고 전략적 통상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 주도 경제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법’ 제정과 7대 지원패키지 연계,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 구축을 골자로 한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등 중점 추진 계획을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수소충전소 80% 적자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

충전소 구축 목표 달성률 74.7%
수소차 등록 대수는 16.4%에 그쳐

산업운영 중인 전국 수소충전소 10곳 중 8곳이 적자를 내며 정부 보조금으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차 보급이 충전소 구축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충전소 이용률이 급감하고, 적자가 누적돼 문을 닫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의원(국민의힘)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산업운영 중인 수소충전소 258곳 가운데 80.6%(208곳)가 적자를 메우기 위한 연료규입비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는 2021년 63.2%에서 해마다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다.

실제로 최근 운영을 종료한 수소충전소 8곳 중 대전 대성, 전남 여수, 서울 이동식, 창원 중앙 등 4곳이 사업성 저조와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폐업했다. 구축 시 국고 보조율이 50%에 달했던 시설과 2024년에 지어진 신규 충전소도 포함됐다.

원료비 상승도 운영 여건을 악화시켰다. 전국 연평균 수소 판매가격은 2022년 kg당 8439원에서 올해(1~9월) 1만364원으로 22.8% 올랐으며, 일부 충전소의 최고가는 kg당 1만5000원에 달했다. 이에 정부의 연료보조금 예산 역시 올해 역대 최대인 191억원까지 늘었다.

이 같은 파행의 근본 원인은 수소차 보급과 인프라 구축 간의 심각한 불균형이다. 정부의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른 충전소 구축 목표(660기 이상) 대비 현재 달성률은 74.7%(493기)에 달한다. 반면 수소차 등록 대수는 4만9220대로 목표(30만 대)의 16.4%에 불과하다. 연간 수소차 보급량은 2023년 1만256대에서 지난해 3784대로 급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호남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전력·용수, 차질 없이 공급 가능”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 6.3GW, 용수 65만톤 ‘충분’
단축 방안 통해 18개월 공기 검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사진)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전력공급 시설 구축 일정의 실현 가능성 지적에는 기존 송전선로 활용과 구간 분할 공사 등 공기 단축 방안을 고려해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호남 반도체산업단 전력·용수 공급 관련 질의에 “전력 6.3GW와

용수 65만톤은 새로운 호남의 산업적 수요들을 고려해볼 때 충분히 가능한 용수와 전력 규모라고 보여진다”며 “차질 없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호남의 기존 발전 역량과 수자원이로도 대응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여러 전문가들의 검토 내용까지 종합해 보면 현재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 그리고 한전의 평가이자 의견”이라며, 용수 문제에 대해서도 “영산강이나 섬진강 댐의 물도 대부분 농업용수로 사용되거나 하천유지용수로만

사용돼 왔다.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산업적 인프라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생겼던 일”이라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전력망 구축 일정의 비현실성을 꼬집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10년간 준공된 345kV 송전선로 건설 사업 10건의 평균 소요 기간(설계 15개월, 공사 4년 8개월)을 제시하며 정부가 제시한 18개월 공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영광 한빛원전~신광주 변전소 선로에서 광주공항까지 약 32km 구간을 분기하는 방안과 공사 구간을 10km나 500m 단위로 나누어 진행하는 공기 단축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설계 착수 및 입지 확정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세부 자료를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법) 제정 관련 명단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정책을 두고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김 장관의 해명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명단 비공개 이유에 대해 “차문위원들한테 명단이 공개되니까 그 차문위원들한테 온갖 연락이나 이런저런 잡음이 많이 생겼던 게 과거부터의 관행이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라며, 주요 정책 쟁점은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경원, 김기현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전 검증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명단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꼭 필요하면 열람하거나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하나의 별은
혼자 반짝이지만
별들이 모이면
방향이 된다

함은 길이 된다



AI 시대 전기화·에너지를 위해 SK이노베이션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조희대 “재제청 요구, 헌법 근거 없어”… 사법독립 강조

(대법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헌법상 권한 존중하기 위한 결정”
삼권분립 이유로 국감 증언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유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와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구체적으로 “저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면서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고,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며 “저는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신을 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지

난 8월 법사위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같은 취지로 설명드린 바 있다.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선서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한편, 대법관 재제청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으로 지명·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청와대는 이 중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다시 제청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정치권의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윤호중 “중수청, 권력형 범죄 엄정 대응”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중대범죄수사청 조기 안착 등 과제
AI 활용 재난 예측 체계 구축 추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우리 사회에 가장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기틀을 다지고 있다”며 “새롭게 출범한 중수청이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부실 압장 수사로 실추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쇄신 등 경찰 개혁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적 참사와 재난 피해자분들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산불과 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 지원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며 “가을철 산불과 겨울철 대설, 한파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연말연시 축제와 행사도 인파 사고 ‘제로(0)’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방재 기준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갖추겠다는 계획도 내놔다.

지역 균형성장과 관련해서는 “변화된 인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인구감소지역

을 새롭게 지정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 우대 기준을 정책 전반에 폭넓게 적용해 비수도권을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지방의 자주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지방 주도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기존 세원 일부를 지방 주거복지세로 전환하고,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꺼냈다. 윤 장관은 “AI 국민비서를 통해 국민이 찾기 전에 필요한 혜택이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복합 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보편화해 일상 속 행정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AI 기반의 정책 토론과 숙의를 활성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겠다고 “국민 주권을 더 충실히 구현하는 세계 최고의 AI 민주 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인 해결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사과하며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바로잡아 진정한 사회통합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李 대통령, 검찰개혁 강경파에 잇단 경고

중수청·공소청 첫 국무회의
“정치권력에 휘둘러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범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의 주장을 직격하며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권 내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향해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약화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지난 2일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고 처음 열린 국무회의인 만큼 이 같이 주문한 것이다. 이 자리엔 중수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차장과 공소청장 직무대행인 이정현 차장이 참석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전날(5일) 범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메시지를 연이어 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검찰개혁의 성과를 강조하며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음에도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인사권’까지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작가 등 범여권 강경파들의 과거 발언을 담은 영상을 재공유하며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행정안전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걸음 더 나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발언 수위가 높아진 것은 기자회견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그리고 김지용 후보자 임명 관련 청와대 입장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강경파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아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예진 기자 syj@

한병도 “AI 해킹 대응, 국가 과제로 격상”

(민중당 원내대표)

“AI 기반 방어체제로 전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최근 주요 금융회사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으로 고객과 직원의 정보 유출 등 피해가 잇따르는 것을 두고 “민주당과 정부는 AI(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 공공 부문 디지털 안전 확보를 국가 차원의 통합 과제로 격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로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안전을 촘촘하게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중은행에서 AI를 활용한 외부 해킹으로 추정되는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

한 가운데, 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한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일부 해킹 공격에서는 AI를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사인의 엄중함을 더하고 있다”며 “기술의 발전이 국민을 겨냥하는 실질적인 위협이 됐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물론이고 과기부, 국정원, 경찰 등 유관기관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촘촘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AI를 활용한 공격이 빠르게 고도화됨 따라 AI 기반 방어 체계로 전환도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민주당, 윤리특위 ‘여야 동수’ 추진

국민의힘 반발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요건과 관련해 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안 야당과 협상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의 수석대변인인 김태규 의원이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민주당이 구성 요건을 ‘교섭단체’에서 ‘여야’로 확장하며 국민의힘을 압박

하는 모양새다.

김성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특위 구성과 관련해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안이 10월 2일에 발의돼서 의인과 올라가 있다”며 “한병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야당과 관련 협상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태규 의원의 발언 등 윤리위에서 논의할 사항이 많은데,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수석대변인을 최소한 사퇴

시키는 등의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윤리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아서 협상의 속도를 내보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리특위 구성 요건이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해당하는 ‘교섭단체 동수’가 아니라 ‘여야 동수’로 확장된다면 야당 몫에 국민의힘과 진보 성향 정당까지 포함될 수 있어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된다.

22대 국회 개원 후 윤리특위는 수년째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윤리특위는 1명의 위원장을 포함해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윤리특위에서 표결을 거쳐 의결된 징계안은 본회의에 상정된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모두를 위한 **하나의** 금융이 내일을 위한 **행복의** 기회로

누구나 더 밝은 내일을 그려가도록 하나금융그룹이 **포용금융**으로 힘을 더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누구나 필요한 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금융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의 금융권리를 넓혀갑니다

• 청년 및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 채무자보호 및 범죄예방

•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내재화

◆ 해당 제작물은 생성영시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최대 19.4% 적금 효과… 청년도약계좌서 갈아타기 기회

‘청년미래적금’ 2차 접수 시작

금융위, 농협 등 은행 14곳 통해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34세 이하, 연봉 7500만원 미만 대상 월 50만원 납입시 최대 2255만원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이 7일부터 16일까지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 ‘청년도약계좌’의 갈아타기도 한시 허용한다. 내년 중 청년미래적금의 가입대상 확대 및 우대형 지급비율 상향이 예정된 만큼, 지난 1차 가입기간에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했거나 2차 가입기간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혜택을 소급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7월 1차 신청 당시 절차상의 어려움이나 가구원 동의 필요, 복잡한 상품 가입 절차 등을 이유로 가입을 놓친 청년이 많았던 만큼, 추가 가입기간 운영을 통해 상품 수요에 대응한다는 목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14개 취급기관(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우정사업본부)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신청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

〈청년미래적금 상품구조 및 소득기준〉

/금융위원회

구분		소득기준 (①+② 동시충족)		기여금 매칭 비율
		①연소득연매출	②가구 중위소득 (맞벌이 2인 가구)	
기여금 미대상 (세제혜택만 부여)		총급여 6천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기여금 대상	일반형	소상공인 일반소득자	연매출 3억원 이하	200% 이하 (250% 이하)
		신규	총급여 6천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우대형	중소기업 재직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12%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요하지 않지만, 소득 심사 과정에서는 가구원 동의 등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다. 서금원은 오는 11월 12~13일 중 심사 결과를 안내하며, 취급기관 별 계좌개설은 11월 16~27일 진행된다.

◆ 내년 최고 연 25% 금리 ‘소급적용’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이면서 연 75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이 6000만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6%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을 제공하며,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거나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했다면 12%의 기여금을 제공하는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기여금과 별도로 가입

기관별 이자를 제공한다. 금리는 연 5%의 기본금리에 가입기관별로 2~3%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우대형을 기준으로 정부 기여금 및 8%의 최고금리를 적용한 실질 이자액은 연 19.4%의 적금과 맞먹는다.

정부는 최근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우대형의 기여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소득 6000만~7500만원의 청년에 일반형에 해당하는 6%의 기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우대형도 기여금 비율을 납입액의 15%까지 상향하며,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기여금을 25%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 확대 및 기

여금 상향을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현재 국회 심의를 거치고 있다. 정부는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반기별 운영이 예정된 청년미래적금 신규 신청 시 해당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차 가입기간이나 2차 가입기간 동안 상품에 가입한 청년에게도 상향된 기준을 소급해 기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청년도약계좌와 ‘갈아타기’ 허용

정부는 2차 가입기간 동안 지난 정부의 청년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의 갈아타기도 추가 허용한다. 정부는 청년 및 유관기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 1차 가입신청 당시에만 갈아타기를 허용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청년미래적금의 가입기준 상향과 지원금 확대가 추진되는 만큼 갈아타기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갈아타기 기간 동안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기지급된 정부지원금을 보전한다. 만기 해지와 동일하게 비교세 혜택도 제공된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경우 2차 신청기간 내에 청년미래적금을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했던 취급기관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단,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갈아타기 기간에 청년미래적금을 가

입했다더라도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으면 납입이 불가해질 수 있다.

◆ 가입 시 우대금리 고려해야

청년미래적금은 취급기관별로 최고 연 8%의 이자를 제공하는 만큼, 우대금리를 최대한 적용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대형을 기준으로 매달 5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금리가 연 5%라면 만기시 약 2171만원을 받는 반면, 금리가 연 8%라면 만기시 약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정부기여금 지급기준 상향이 적용되면 차이는 더 커진다.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각 은행과 우체국은 인터넷뱅킹 및 금융상품 비교 플랫폼을 통해 청년미래적금의 우대금리 요건을 공개하고 있다.

2차 가입 신청 기간을 앞두고 최대 연 8%의 금리를 제시하는 취급기관은 6곳(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이다. 각 은행은 금리 요건으로 가입기간 내 주거래 이력, 계열사 상품 가입, 당행 카드 이용, 당행 예적금 미가입 등 요건을 제시한다. 단, 신한은행은 우대요건에 당행에서 가입한 청년도약계좌의 갈아타기를 지정하고 있어 청년미래적금만으론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안송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공공주택 착공, 목표의 27% 그쳐… 연내 6만호 ‘속도전’

국토부, 3분기 수도권 착공 1.7만호 착공 예정물량 4.5만호 4분기 집중 내년 소규모 정비 포함 8.4만호 목표

정부가 연일 ‘다공’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 착공으로 이어진 실적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공공택지의 경우 착공기간 단축에 나섰지만 현장에서 체감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내 공공주택 착공은 3분기까지 1만7000호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연간 목표 6만2000호의 27.4%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GH) 등과 함께 제3차 공공주택 공급점검 TF 회의를 갖고 3분기까지의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실적과 연말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착공 예정 물량이 4분기에 집중된 만큼 6만호 인원은 가능할 것이라 입장이다.



서울 잠수교에서 바라본 아파트 신축 현장 전경.

/뉴시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며 “공공주택 약 4만5000호를 포함해 신축매입, 민간정비가 모두 4분기에 착공 예정 물량이 몰려 있어 최대한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현장별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공공부문 착공 목표 물량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포함해 8만4000호 인원이자.

전체 수도권의 공급 상황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8·13대책을 통해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고, 신규택지 10만호 등 23만호 이상 추가 공급과 공공택지 착공기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착공 누계실적은 6만

5000호로 연간 목표치 26만9000호(+α) 대비 24.2% 수준에 그쳤다. 착공 선행지표인 인허가 실적은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과거 평균치 대비 급감했던 작년과 비교했을 을 감안하면 큰 기대를 하긴 어렵다.

건설연 관계자는 “연말까지 착공 목표 달성은 어려운 전망”이라며 “수도권 물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민간부문의 공급 동력 회복 여부가 대책 실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강남 매물이 많이 늘었음을 인용하며 공급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전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22년부터 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하여 시치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 단기적인 집값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 정부 들어서 얼마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택지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미 기자 smahn1@

우리은행·LG유플러스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금융거래 정보·통신 데이터 연계 예방체계 구축·의심징후 신속 탐지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LG유플러스와 협력한다.

우리은행은 LG유플러스와 금융거래 정보와 통신 데이터를 연계한 보이스피싱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사기 의심징후를 보다 신속하게 탐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 양사 간 체결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양사는 앞서 지난 8월 27일 우리은행 금융사기 예방시스템과 LG유플러스의 ‘익시오(IXI-O)’ 정보 간 실시간 연동을 완료했다. 인공지능 기반 통화앱 ‘익시오(IXI-O)’ 탐지 정보는 LG유플러스가 보유한 보이스피싱 위험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권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통화 단계 위험을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우리은행은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LG유플러스 데이터 기반의 전용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탐지정책을 마련했다. 양사는 앞으로 정보공유 체계의 2차 고도화를 통해 우리은행 FDS에서 탐지한 금융사기 의심정보를 LG유플러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금융과 통신의 경계를 넘나들며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양사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고객이 금융과 통신을 아우르는 보호 서비스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양사의 데이터와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보다 안전한 금융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송진 기자

LH, 상가·오피스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2125호 접수

빈 상가와 오피스 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올해 2125호의 신청 물량을 확보했다. 당초 목표였던 2000호보다 125호 많은 규모로, LH는 심의를 거쳐 연말부터 약정 체결에 나선다. 6일 LH에 따르면 2026년 비주택 리모

델링 사업(약정 방식) 공고 결과 총 2125호가 접수됐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준)주택으로 전환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사업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신청 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당초 9월 9일까지였던 신청 접수 마감일을 9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지난 7월 30일 열린 사업자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반영해 접수기간을 한 차례 늘렸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소화 방식도 추가로 도입했다. 신청자가 건물 정보 등을 간략히 적은 접수요청서를 제출하면 LH가 이를 토대로 신청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본 신청서류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LH는 이달 서류심사와 다음달 매입

/이현진 기자 lhj@

K-방산, 발사체·위성 등 투자 확대… 우주 영토확장 본격화

**한화에어로 재사용 기술 확보 주력
현대로템 메탄엔진 기술과제 수주
KAI 우주 기반 서비스 사업 진출
LIG D&A 위성 생산기반 확충**

국내 방산기업들이 무기체계 개발에서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주산업에서 새 먹거리를 찾고 있다. 발사체·위성 개발에 생산시설 투자를 더하고 위성정보서비스까지 사업을 넓히면서 우주사업을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다.

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발사체·추진기관 개발과 생산 기반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KAI와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는 국가 위성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화시스템은 위성영상 분석 기술을 확보해 정보 활용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항공우주 기술과 국방 기술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며 “방산 기업들의 우주사업 확대는 두 분야의 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다연장 로켓의 모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술적 시너지를 높이려는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재사용 기술 확보와 상업발사 기반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우주발사체 분야에 약 23조원을 투자해 단조립장과 개발시험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주관하는 ‘재사용 기술 시연체’ 총

조립에 착수했다. 체계종합을 맡아 오는 2028년 고도 500m 수직 이착륙 시험을 통해 엔진 추력조절과 자세·유도제어 등 핵심 기술을 검증할 계획이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재사용 발사체용 메탄엔진 기술개발 과제를 수주한 데 이어 시험·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서산 액체로켓엔진 시험장에 더해 2034년까지 약 3000억원을 투자해 무주에 연구개발부터

시험·검증, 양산까지 수행할 항공우주 종합 생산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달 현대자동차와 맺은 기술협력 협약에 따라 생산 공정에 AI 기반 스마트팩토리 기술도 적용하기로 했다.

위성 분야에서는 KAI가 차세대중형위성과 군정찰위성, 초소형위성 개발 경험을 토대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항우연과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공동 개발하고 이 전반기 기술로 2호 개발을 주도한 데 이어 핵심 탑재체 기술 내재화와 위성망 구축, 우주 기반 서비스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LIG D&A는 천리안위성 5호 개발과 함께 위성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약 1000억원을 투자해 대전하우스에 위성·레이저체계 조립동을 준공했다. 천리안위성 5호 등의 조립·시험이 가능한 시설로, 위성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서비스 관리를 위한 첨단위성 영상활용실도 갖췄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말 제주우주센터를 준공해 위성 개발·조립·시험 기반을 갖

춘 데 이어 영상 분석 기술을 선보였다. 지난달 폴란드 방산전시회 MSPO에서는 실제 위성이 촬영한 동유럽 영상을 AI로 분석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전자광학(EO)·합성개구레이다(SAR) 위성영상에서 항공기·선박·차량 등을 식별하고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기술로, 군사적 움직임 추적과 재난 피해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방산기업들이 우주사업을 확대하면서 기술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연구개발 재원 확보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미국·중국·러시아에 비하면 아직 초기 단계지만 우리도 우주발사체와 군 위성을 쏘아 올리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기초연구부터 관련 프로젝트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참여를 넓히면서 우주개발에 속도를 내야 하는 만큼 방산업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LG, 카메라 모듈·배터리팩 등 실제 우주환경 기술 실증

**누리호 5차에 계열사 부품 탑재
실증 데이터 바탕 사업기회 발굴**

LG가 7일 발사 예정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5차에 계열사 부품을 탑재하고 실제 우주 환경에서 기술 검증에 나선다. LG 계열사들이 부품을 우주에 올려 공동 실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사이언스파크는 달 탐사 로버 개발 스타트업 무인탐사연구소와 함께 준비한 큐브위성에 LG이노텍,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등의 부품 5종을 탑재한다고 6일 밝혔다.

누리호 5차 발사가 성공하면 큐브위성은 고도 약 570km 상공에서 60일간 운용된다. 이 기간 LG는 지상과 다른 극저온·진공·방사선 등 우주 환경에서 부품의 작동 여부와 신뢰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LG 카메라 모듈, 배터리 셀, 통신 모듈용 안테나가 탑재된 무인탐사연구소의 달 탐사 로버. /LG

큐브 위성 탑재 부품은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팩, LG전자의 파워모듈·자세제어 구동기·위성 통신용 안테나다. 카메라 모듈은 한반도 상공을 촬영해 데이터를 전송하고, 파워모듈과 자세제어 구동기는 위성의 전력 및 자세 제어를 담당한다. 배터리

팩은 전원 공급과 함께 상태 정보를 수집하며, 안테나는 위성의 기본 통신 수단으로 상시 작동한다.

이번 실증은 기존 상용 부품을 우주 환경에 맞게 보완해 활용하는 ‘COTS’(Commercial Off-The-Shelf)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주 전용 부품을 새롭게 개발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상용 기술의 우주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LG는 이번 실증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우주용 기술 개발 가능성을 검토한다. 오는 2028년에는 자체 큐브위성을 발사해 독자적인 위성 탑재 기술 검증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LG의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슈퍼스타트’를 통해 시작됐다. LG 사이언스파크는 2023년 무인탐사연구소

를 육성 스타트업으로 선정했으며, 양사는 지난해 달 표면 모사 테스트베드에서 로버 주행 시험을 진행하는 등 협력을 이어왔다.

LG는 우주산업을 미래 성장 분야 가운데 하나로 보고 사업 기회 발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우주항공청과 우주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사우스8 테크놀로지스와 항공우주용 배터리 셀 개발에도 착수했다.

정수현 LG사이언스파크 대표는 “이번 발사는 LG의 기술이 우주 환경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첫 단계”라며 “지상에서 축적해온 기술을 검증해 나가면서 국내 우주 산업 생태계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탭·태그’ 신제품 판매

삼성전자가 생산성을 높인 ‘갤럭시 탭 S12’와 아이폰까지 지원하는 ‘스마트태그3’를 국내 출시하며 갤럭시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6일 ‘갤럭시 탭 S12 시리즈’와 ‘스마트태그3’의 국내 판매를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달 31일까지 구독료 지원과 액세서리 할인 등 출시 기념 혜택도 제공한다.

탭 S12 시리즈는 콘텐츠 제작과 학습 편의성을 높였다. 탭 S12 울트라는 14.6형 화면에 두께 5.1mm를 적용했으며 탭 S12+는 두께 5.3mm에 무게 553g으로 제작됐다. 한 번 충전으로 동영상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은 각각 최대 23시간과 21시간이다.

함께 출시하는 스마트태그3는 소지품이나 반려동물에 부착해 위치를 확인하는 기기로, 이번 제품부터 아이폰에서도 위치 확인과 공유를 지원한다. 60m 이내에서는 물건의 대략적인 방향을 안내하고 20m 이내에서는 초광대역(UWB) 기술로 정확한 위치를 찾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제네시스, ‘GV80 하이브리드’ 선보

시스템 합산 최고출력 352마력

제네시스가 브랜드 첫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이며 럭셔리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 공략에 나섰다. 단순히 연비 향상을 넘어 후륜구동 기반의 고성능·고효율 시스템과 전기차 수준의 정숙성을 앞세워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제네시스는 6일 2.5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GV80 하이브리드’를 출시하고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5 터보 엔진에 P1 모터와 최고출력 59.1kW의 P2 구동모터를 결합한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했다.

시스템 합산 최고출력은 352마력으로 기존 GV80 2.5 터보보다 약 16% 높아졌다. 19인치 휠·2WD·5인승 기준 복합연비는 12km/ℓ로 약 29% 개선됐다. 76ℓ 연료탱크를 고려하면 1회 주유로 최대 약



제네시스 GV80 하이브리드.

912km를 주행할 수 있다.

가격은 개별소비세 5% 기준 7680만원이다. 제네시스는 이날 상품성을 높인 2027 GV80(6985만원)과 GV80 쿠페(8270만원)도 함께 출시했다.

제네시스는 GV80 하이브리드를 통해 전기차의 정숙성과 즉각적인 응답성, 내연기관 SUV의 장거리 주행성을 동시에 원하는 프리미엄 고객을 겨냥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LG화학, 獨 플라스틱 전시회 ‘파쿠마’ 참가

필름 등 고성능·고부가 소재 소개

LG화학이 유럽 소재 시장에서 AI 데이터센터와 로보틱스를 새 수요처로 겨냥하고 있다. 자동차·전기전자에 적용해온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기술을 신산업으로 확장하면서 고객의 설계 단계부터 소재 채택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한다.

LG화학은 12일부터 16일까지 독일 프드리히스하펜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전시회 파쿠마(Fakuma) 2026에 참가한다고 6일 밝혔다.

파쿠마는 글로벌 소재 기업과 유럽 주요 제조업체들이 참가하는 대표적인 플라스틱 산업 전시회다.

LG화학은 이번 전시회에서 AI 데이터센터·로보틱스용 차세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고기능 통기성 필름 등 고성능·고부가 소재를 선보인다. 자동차용 무도장

소재와 금속 대체 솔루션, 바이오 기반 소재와 저탄소 솔루션도 함께 소개해 고객의 비용 절감과 친환경 전환 수요에 대응한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금속을 대체해 제품 무게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고성능 소재다.

LG화학은 이러한 수요를 소재 공급으로 연결하기 위해 고객의 제품 개발 과정부터 협력을 강화한다. 약 70㎡ 규모의 전시관 가운데 절반 이상을 미팅 공간으로 마련하고 고객별 요구 성능과 개발 과제에 맞춰 소재 적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LG화학은 기술 협의에 자체 시뮬레이션 솔루션 ‘SISO(Simulation Integrated Solution)’도 활용한다. 고객이 설계 단계에서 제품 성능을 예측·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 협업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두산에너지빌리티 380MW급 가스터빈 출하

두산에너지빌리티가 미국 인공지능(AI) 기업에 공급할 대형 가스터빈 제작을 마치고 미국 시장 첫 수출에 나선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미국 AI 기업 스페이스X에 수출하는 380MW급 가스터빈 ‘DGT6-300H’ 제작을 완료하고 출하식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청원 본사가 가스터빈 조립공장에서 열린 출하식에는 스페이스X AI 주요 관계자와 손승우 두산에너지빌리티 파워서비스BG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관계자들은 가스터빈 출하 현장과 생산 시설을 둘러본 뒤 두산에너지빌리티 경영진과 향후 가스터빈 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원관희 기자

LG전자, 북미서 5GW AIDC 냉각 솔루션 장기 공급 확보

美 ‘에어 컨트롤 콘셉트’ 기업과 AIDC용 칠러 장기 공급계약 체결 액체냉각 협력 범위 확장 논의도

美 생산공장, 국내 생산라인 확충 칠러사업 매출 1조 조기달성 기대

LG전자가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시장인 북미에서 5기가와트(GW) 규모의 냉각 솔루션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 고효율 칠러를 중심으로 대규모 장기 공급 기반을 마련하며 AI 데이터센터 냉각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LG전자 미국법인인 최근 북미 인프라 플랫폼 기업 에어 컨트롤 콘셉트(이하 ‘에어사’)와 AI 데이터센터용 칠러 장기 공급계약(LTA)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LG전자는 총 5GW 규모 AI 데이터센터(AIDC)에 고효율 칠러 등 냉각 솔루션을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용량은 올



LG전자는 최근 미국 ‘에어 컨트롤 콘셉트(AIR Control Concept)’사와 총 5기가와트(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냉각솔루션을 공급하는 장기 공급 본계약(LTA)을 체결했다. (왼쪽 왼쪽부터) LG전자 북미지역대표 광도영 부사장, LG전자 ES사업본부장 이재성 사장, (아래줄 왼쪽부터) LG전자 미국법인 ES담당 안혁성 상무, 헤이든 블랜드(Hayden Bland) 에어 컨트롤 콘셉트 사장(President).

/LG전자

해 226GW에서 내년 334GW로 108GW 증가할 전망이다. LG전자가 확보한 5GW 규모 공급 물량은 이를 단순 비교하면 증가분의 약 5%에 해당한다.

에어사는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AIDC 설계와 구축, 공공 조달 및 에

프터마켓 서비스 등을 총괄하는 인프라 플랫폼 기업이다. 데이터센터 전문 자회사 AMC(AIR Mission Critical)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양사는 액체냉각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AI 연산을

위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탑재가 늘면서 데이터센터의 전력 밀도와 발열량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LG전자와 에어사는 액체냉각 핵심 설비인 냉각 수분배장치(CDU) 등으로 공급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LG전자는 칠러부터 CDU, 콜드플레이트까지 아우르는 ‘칩 투 칠러(Chip to Chiller)’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수주한 북미 대형 AIDC 프로젝트에도 올해부터 냉각 솔루션 공급과 설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동과 인도네시아 등으로 공급 지역을 넓히는 한편 LG에너지솔루션, LG CNS 등 그룹 계열사의 역량을 결집한 ‘원(One) LG’ 통합 인프라 솔루션을 앞세워 AIDC 사업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대규모 수주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능력 확대도 진행 중이다. LG전자는 내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미국 버지니아주에 공랭식 칠러 생산공장을 구축하고, 국내 평택·창원에도 신규 생산라인을 확충한다. 미국 공장 신설과 국내 생산라인 증

설·고도화에 총 1500억원을 투자해 북미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AI 데이터센터 냉각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의 AIDC 냉각 솔루션 사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주액은 6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연말까지 누적 수주액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2027년 말로 잡았던 칠러사업 매출 1조원 달성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어사 브랜드 흡스 CEO는 “LG전자의 고효율 칠러 기술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포트폴리오 구축 과정에서 검증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 사장은 “LG전자의 고효율 칠러, 고성능 액체냉각 솔루션을 비롯한 차별화된 기술력과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공급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AIDC 냉각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삼성전기, AI 서버용 MLCC 2900억 계약

(적층세라믹커패시터)

글로벌 대형기업과 공급계약 체결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장기공급

삼성전기가 글로벌 대형 기업과 290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서버용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AI 부품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올해 장기공급계약(LTA) 누적 규모는 약 3조9000억원으로 늘어나며 고부가 AI 부품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글로벌 대형 기업과 약 2900억원 규모의 AI 서버용 MLCC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이번 계약은 공시 기준 삼성전기가 올해 체결한 6번째 장기공급계약이다. 삼성전기는 지난해 29일에도 글로벌 대형 기업과 AI 서버용 MLCC·인덕터를 공급하는 29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약 3조6000억원이던 올해 누적 장기공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전경.

/삼성전기

급계약 규모는 이번 계약을 추가하면서 약 3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삼성전기는 지난 5월부터 살리온 커패시터와 AI 서버용 MLCC, 인덕터 등을 중심으로 장기공급계약을 잇달아 확보하고 있다.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AI 서버용 고부가 부품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MLCC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반도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부품 간 신호 간섭을 막는 핵심 수동부품이다. 특히 AI 서버용 MLCC는 일반 서버보다 탑재량이 10배 이상 많아 서버 랙 기준 최대 60만개가 사용된다. 24시간 가동되는 고온·고전압 환경을 견뎌야 하는 만큼 초소형·초고용량과 높은 신뢰성도 동시에 요구된다.

AI 서버의 고성능화로 전력 사용량이 늘면서 MLCC뿐 아니라 인덕터 등 전원 관련 부품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인덕터는 전류 변화에 대응해 전원 공급을 안정화하고 전력 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줄이는 수동부품이다. 삼성전기는 고전류·고효율·고신뢰성 인덕터를 비롯해 AI 서버용 핵심 수동부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효율·고신뢰성 MLCC 기술과 안정적인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고객사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다수의 글로벌 기업과 MLCC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추가 공급계약도 논의 중이다.

/차현정 기자

에코프로비엠-삼성SDI, 전고체 협력 확대

핵심소재 개발 ‘맞손’

에코프로비엠과 삼성SDI가 고체전해질·양극재 공동 개발을 통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 소재 개발부터 품질 검증과 양산 체계 구축까지 협력을 확대하면서 2027년 상용화를 위한 기술 기반과 소재 공급망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에코프로비엠은 삼성SDI와 전고체 배터리용 소재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사는 전고체용 양극재와 양극용·분리막용 전해질 등 핵심 소재 전반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삼성SDI는 전고체 배터리 셀 개발과 양산 기술 고도화를, 에코프로비엠은 핵심 소재 개발을 맡는다. 개발 초기부터 소재 특성과 셀 성능을 함께 평가하고 양산 체계와 공급망 구축까지 협력할 방침이다.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해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다. 화재 위험을 낮추고 한 번 충전으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어 전기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에 적용할 핵심 기술로 꼽힌다.

에코프로비엠은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황화물계 고체전해질의 독자적인 공정 기술을 확보하고 연산 40톤 규모의 파일럿 플랜트를 운영하고 있다. 고체전해질 기술 개발에 있어서 핵심 기술인 분말제어와 품질관리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기존 하이니켈 양극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고체전해질에 적합한 양극재도 개발 중이다.

소재 양산을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공보한 에코프로비엠 연구개발 담당 상무는 “현재 우수 고객사와 시양산을 검토 중으로 가장 빠른 양산 시점은 2027년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산 라인 설계를 마치고 고객 수요에 맞춰 즉시 착공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제주항공, 中 신규 취항·기존 노선 증편

베이징·창사 운수권 확보

제주항공이 중국 항공여행 수요 증가에 맞춰 취항지를 넓히고 주요 노선 운항을 늘린다.

제주항공은 올해 추가 확보한 중국 운수권을 바탕으로 신규 취항을 추진하고 동계 기간 기존 노선을 증편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 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 노선 여객 증기율은 전년 동기 대비 23.0%로 전체 국제선 증가율(9.8%)의 두 배를 넘었다. 이 기간 중국 노선을 이용한 여객은 약 1362만명이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인천~베이징 주 7회, 인천~창사 주 4회 등의 운수권을 확보했다. 베이징의 관광·비즈니스 수요와 장자제 여행의 관문인 창사의 관광 수요를 겨냥한다.

지난 4월 배분받은 운수권까지 더하면 중국 내 취항 가능한 도시는 기존 10곳에서 13곳으로 늘어난다. 충칭·청두·창사가 추가되며, 대구와 제주에서 출발하는 신규 중국 노선도 운항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노선은 동계기간 증편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오는 25일부터 부산~상하이 12월 15일까지 주 4회에서 매일 운항으로 늘린다. 칭다오·웨이하이·장자제 노선도 운항 횟수를 확대한다. 구이린과 스자좡 노선은 11월까지 운항기간을 연장한다.

현재 제주항공은 부정기편을 포함해 14개 중국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추가 운수권을 활용한 취항지 확대와 기존 노선 증편을 병행해 중국 노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승혁 기자 sh95@

SK케미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확대

‘폐현수막 순환자원화 사업단’ 구성 영남·호남·제주서 수거해 생산·공급

SK케미칼이 지역 기업·지자체와 손잡고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활용한 폐현수막 자원화 사업을 확대한다. 영남·호남·제주에 수거부터 새 현수막 생산·공급까지 이어지는 순환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폐기물 처리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SK케미칼은 모아(MOA)·대한미디어·엠텔로스·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자원순환팀과 ‘폐현수막 순환자원화 사업단’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사회적가치페스타’ 연계 아이디어 숏버튼에서 제안한 폐현수막 처리·순환경제 구축 과제를

구체화했다.

폐현수막 수거는 영남권에서 모아와 대한미디어가, 호남권에서는 엠텔로스가, 제주에서는 서귀포시가 맡는다. 수거한 폐현수막은 모아의 전처리와 SK케미칼의 해중합 공정을 거쳐 재활용 원료로 전환된다. 대한미디어는 이를 활용한 현수막 원단 생산에 참여하고 전국 판매망을 통해 각 지역에 공급한다.

엠텔로스는 재활용 센터 기반의 수거·선별 경험을 바탕으로 재활·장애인 인력 고용도 추진한다. 서귀포시는 수거부터 재활용 현수막의 재사용까지 지역 내 순환 체계가 작동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폐현수막을 잘게 분쇄해 화학적 재활용 과정을 거쳐 재활용 소재를 만든 후 실을 방사해 현수막으로 제작되는 각 단계 별 제품들의 모습.

/SK케미칼

는 매년 약 6000톤의 폐현수막이 발생하며 약 70%가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에코백이나 폐기물 봉투로 활용하는 방식도 있지만 사용 후 다시 폐기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SK케미칼은 이번 사업 대상 지역에서만 연간 1000톤 이상의 폐현수막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정부 국가대표 AI 투트랙 전환… 새 사업에 기업들 ‘혼선’

독파모 유지에 프론티어 AI 병행 사업의 지원·평가 기준 등 불확실 업계 “전략 조정여부 판단 어려워”

최상급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으면서다.

6일 IT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독파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는 최근 최상급 AI와 산업 특화 모델 개발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재편됐다. 글로벌 AI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기존 독파모 사업만으로는 최상위권 모델과의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독파모 사업의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의 목표와 역할을 두 축으로 나누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기존 사업보다) 더 높은 목표를 지향하는 프론티어 AI 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하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 사업이 최상급 AI와 산업 특화 모델 두 전략으로 재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산업 확산,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독파모 사업 중단설이 확산하자 이를 거듭 해명해왔다. 지난달 28일 독파모 3차 평가를 포함한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최상급 AI 개발에 집중할 가능성이 거론된 게 논란이 된 배경이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독파모사업 중단과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두고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최상급 AI 개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에도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지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배경훈 부총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독파모는 계속된다”고 밝히면서도 최상

위급 AI 개발을 병행해 이를 국가전력자산으로 삼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정부의 이같은 대처가 정책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독파모 참여 기업도 향후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독파모 최종 선정 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과 두 사업의 연계 방안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업들은 오는 11월 3차 평가를 앞두고 새롭게 추진되는 프론티어 AI 사업을 고려하는 등 개발 전략을 조정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업계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이 오히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는 정책의 목표와 평가 기준을 정부가 보다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환경에 따라 정책을 바꿀 게 아니라 오히려 중심을 뒷받침해야 기업이 AI 개발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며 “정책적 발인과 지침이

계속 바뀌면 개발자들의 사기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독파모와 같은 사업으로 알려진 스타트업들은 외부 투자 유치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기술 기업에는 투자금으로 얼마나 오래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뜻하는 런웨이라는 개념이 있는 만큼 자본력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기존 일정대로 내년 2월 중순까지 독파모 최종 2팀을 가릴 예정이다. 프론티어 AI 개발은 글로벌 최상위 수준의 성능 확보에 자원을 집중하고 출자 절차를 추진한다.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을 위한 예산은 구체화된 상황이다. 총 4조7000억원 예산 중 그래픽처리장치(GPU) ‘베라루빈’ 1만장 구매에 3조9000억원,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에 8000억원, 해외 우수 연구자 20명 유치에 250억원을 투입한다. 세부 추진안은 오는 12월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LG CNS, 디지털자산 인프라 시장 출사표

블록체인 인프라 플랫폼 ‘기틀’ 출시 금융기관 디지털자산 사업 진출 지원

LG CNS가 국내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사업 진출을 돕는다.

LG CNS는 블록체인 인프라 플랫폼 ‘기틀(KITL)’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기틀은 은행, 증권사, 카드사, 결제사 등이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실물연계 자산과 같은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구축할 때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자산사업의 필수 영역인 ▲전자지갑 ▲거래 처리 ▲수수료 대납 ▲거래 내역 수집 내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디지털 자산의 특성을 보완했다.

기존 디지털자산 지갑은 개인키를 보관하는 보안 장비의 용량이 제한적이어서 대규모 확장이 어려웠다. 이에 회사는 서명 시점에만 개인키를 즉석에서 생성해 사용한 뒤 즉시 폐기하는 특허 기술을 적용했다. 추가적인 장비 증설 없이 수천만 명에게 지갑을 발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현한 것이다.

거래 처리는 금융기관 시스템에서 요청한 거래가 블록체인에 정상적으로 처리되기까지 상태를 추적해 결과를 전달한다.

수수료 대납은 블록체인 이용 수수료인 ‘가스비’를 은행, 카드사 등 서비스 제공사가 약속한 구조에 맞게 나눠 부담하도록 처리하는 기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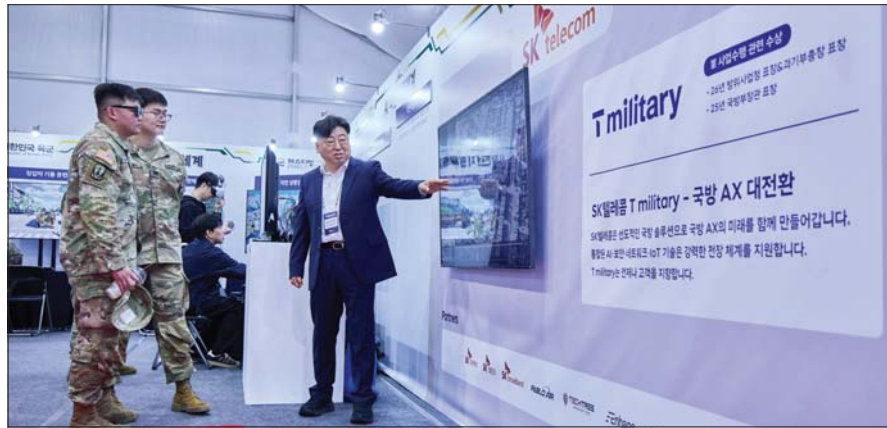
거래 내역 수집은 전 세계 퍼블릭 블록체인 거래 기록 가운데 해당 금융기관

과 관련된 내역만 가져온다. 예를 들어 발행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총량과 달러·원화 예치금을 대조하는데 활용하고, 스테이블 유통사는 정산과 회계, 감사 자료로 활용하는 식이다.

회사는 이번 솔루션의 강점으로 확장성을 꼽았다. 금융기관이 추가적인 인프라 재구축 비용 없이도 유연하게 디지털 자산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솔루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중복 투자 부담을 덜어준다.

LG CNS는 이번 솔루션 기능 강화를 위해 서클, 시큐리티즈, 캔톤 파운데이션, 체이널리시스, 체인링크 등 글로벌 기업 5곳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조민선 기자



SK텔레콤 전시 부스를 찾은 군 관계자들이 국방 AX 브랜드 ‘T 밀리터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SK텔레콤

SKT, 미래 전장 통신·AI 기술 공개

‘AI 참모’로 지휘관 의사결정 지원

SK텔레콤이 국방 분야 인공지능 전환(AI) 사업에 앞장선다.

SK텔레콤은 육군본부 주관하는 ‘2026 지상군페스티벌’에서 국방 AX 기술을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육군의 현재와 미래를 일반 관람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대표 군 문화축제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충남 계룡시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렸다.

SK텔레콤은 ‘T 밀리터리’ 브랜드를 앞세

워 정책홍보관으로 참여해 국방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를 시연했다.

핵심 기술은 ‘AI 참모’다. 군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결·분석하고,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전장 상황을 구현하는 지원 체계다. 이를 통해 지휘관의 상황 판단과 의사결정을 적시에 지원한다. 이를 통해 미래 전장에서 중요한 대규모 데이터 분석, 활용 능력에 대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미래 전장용 통신·보안 기술로 주목받는 저궤도 위성 기반의 통신 체계와 보안 기술도 선보였다.

/조민선 기자

펄어비스, ‘붉은사막’ 흥행에 영업이익 2797억

과천 지정타 실적 선두

펄어비스가 신작 ‘붉은사막’의 글로벌 흥행에 힘입어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주요 입주 기업 가운데 두드러진 상반기 실적을 기록했다.

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펄어비스는 올해 상반기 매출 5211억원, 영업이익 2797억원을 기록했다.

과천 지정타 주요 입주 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펄어비스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JW중외제약 657억원, MK전자 415억원, 셀트리온제약 322억원, 안국약품 246억원, 가비아 232억원, 광동제약 10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펄어비스의 실적 성장은 지난 3월 출시한 ‘붉은사막’이 이끌었다. 붉은사막은 상반기에만 402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기존 대표 지식재산권(IP) ‘검은사막’ 매

출도 11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펄어비스는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영업손실에서도 벗어났다. 펄어비스는 2023년 164억원, 2024년 123억원, 2025년 14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올해 1분기 2121억원, 2분기 67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2797억원으로 과거 연간 최대 영업이익 규모도 넘어섰다.

과천 지정타는 IT·게임·바이오·제약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모이는 기업 클러스터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800곳 이상의 기업이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펄어비스를 비롯해 MK전자, 메가존클라우드, 가비아, JW중외제약, 광동제약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게임 기업의 추가 입주도 예정돼 있다. 넷마블은 과천 지정타에 연구개발센터와 신사옥을 조성하고 있으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KT 요금제·인터넷 상품 챗GPT서 한눈에 비교

공식 상품정보와 챗GPT 연동

KT 고객들은 앞으로 챗GPT에서도 요금제 등 상품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KT는 오픈AI의 챗GPT에 KT 상품정보를 연동한 플러그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플러그인은 챗GPT와 외부 데이터를 연결해 정보 검색 등을 지원하는 연동 도구다. 챗GPT 채팅 사이드바에 있는 플러그인 메뉴에서 ‘KT 플러그인 설치’를 선택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KT 플러그인을 이용하면 KT 홈페이지나 앱에서 상품을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된다. 챗GPT가 이용자들의 자연어 질문을 바탕으로 조건에 맞는 무선 요금제부터 인터넷·IPTV 등 유선상품까지 KT의 다양한 상품정보를 안내한다.

/조민선 기자

LGU+, 우리은행과 보이스피싱 차단

‘익시오 보이스피싱 금융안심’ 서비스

LG유플러스가 금융사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협력해 ‘익시오 보이스피싱 금융안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발됐다. 자사 AI 통화앱 ‘익시오’가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를 감지하면 위험 정보를 연계 은행에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은행은 해당 고객에 대한 이상 거래시스템(FDS)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그동안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대응은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정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기존에는 금융거래 이전 단계에서 진행되는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와의 통화 여부나 AI 변조 음성 사용 여부, 악성 앱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번 서비스는 LG유플러스가 보유한 보이스피싱 위험 탐지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권이 확인하기 어려운 통화 단계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민선 기자

한국투자증권, PB·IB·디지털 결합… 퇴직연금 1위 도전

개인 자산관리·법인 영업망 연결
MTS 개편… 연금자산 통합 관리
자산 풀림 점검 등 장기 운용 지원

“법인 네트워크나 IB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하고 IB 영업력에서도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기업금융과 개인 자산 관리에서 쌓은 역량을 앞세워 증권업계 퇴직연금 1위에 도전한다. 김도현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전무)은 6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열린 ‘연금 MTS 서비스와 연금 플랫폼 전략’ 설명회에서 이 같은 경쟁력을 강조했다. 프라이빗뱅크(PB)의 자산관리 경험과 투자은행(IB)의 법인 영업망에 디지털 서비스를 결합해 기업과 개인을 함께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김 전무는 퇴직연금 시장이 이미 600조원을 넘어섰고 향후 3년 내 1000조원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한국투자증권의 퇴직연금 사업 순위는 증권업계 3위, 전체 사업자 가운데 10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올해 연금 조직을 개편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하며 사업 확대를 준비해왔다.

핵심은 PB와 IB의 연결이다. 개인 고



최종진 한국투자증권 연금혁신본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연금 MTS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객의 금융상품 투자와 자산 배분을 관리해온 PB의 경험을 연금 운용에 활용하고, IB의 법인 네트워크를 기업의 퇴직연금 영업과 연계한다. 김 전무는 연금이 개인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법인도 상대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두 부분의 강점을 함께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개편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은 고객이 자신의 연금을 쉽게 파악하고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황윤희 디지털연금부 팀장은 “이번에는

단순히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서비스를 바라보는 그 기준 자체를 고객 중심으로 바꾸려 한다”라고 말했다.

앱 메인 화면에는 국내·해외 주식과 나란히 독립된 ‘연금 HOME’을 배치해 제도도와 상품, 투자·세금 정보를 모았다. ‘나의 총 연금자산’에서는 한국투자증권에 보유한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연금저축 자산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계좌 구분 없이 보유 상품을 유형별로 묶어 총자산과 수익률, 투자 비중을 보여

줘 전체 자산 배분 상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상품 상세 화면에서는 매수·매도로 바로 연결되며, ETF 체결 기준 잔고와 현금 변동도 장중 확인할 수 있다. 계좌별로는 올해 납입액과 추가 입금 가능액, 위험자산 투자 비중 등을 보여준다. 납입 중인 고객에게는 추가 입금 정보를, 연금 수령이 가능한 고객에게는 수령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계좌 개설 이후 자산을 방치하지 않도록 ‘할 일’ 안내도 강화했다. 입금하지 않은 계좌에는 입금을 안내하고, 입금 후 투자하지 않은 자산에는 운용 방법을 알려준다. 황 팀장은 고객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계좌를 만든 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며, 당장 실행할 일을 하나씩 안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개편에는 개인이 직접 연금을 운용하는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한국투자증권 발표 자료상 2025년 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친 적립금은 699조원이며, 개인이 운용하는 DC·IRP·개인연금 비중은 67.3%다. 상품 선택과 자산 배분 등 고객이 판단해야 할 영역이 넓어진 만큼 이를 지원하는 서비

스도 필요해졌다는 설명이다.

고객과의 관계가 장기간 이어진다는 점도 연금 사업에 힘을 싣는 배경이다. 한국투자증권의 DC 가입자 평균 연령은 36세로 10년 전보다 4세 낮아졌고, 회사가 제시한 이탈률은 1.8%다. 최 본부장은 “연금 고객은 36세의 한투와 만나서 최소한 65세까지 적어도 30년의 기간을 저희 한투 연금과 함께 자산을 운용하고 키워나가고 또 노후 자산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물자산 제도 시행 이후 한국투자증권으로 유입된 연금자산은 2조원을 넘어섰다. 최 본부장은 유입되는 연금 이전 자금의 약 70~80%가 은행권에서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투자증권은 자체 리서치·상품·연금 자산 배분 역량을 결합한 전문가 모델포트폴리오(MP)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보유 상품 시장 분석과 은퇴 후 맞춤형 인출 설계 등을 추진하며 관리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디지털 서비스와 영업점의 대면 상담을 병행하고 법인 채널과의 협업도 강화해 연금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韓 가상자산 경제 604조… 동아시아 ‘최대’ “AI 수혜주·소비주 양극화 전략 바꿀 때”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3% 성장
거래소 활동 16% 늘고 개인 투자 활발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한국의 가상자산 경제 규모가 동아시아 최대 수준인 4491억달러(약 604조원)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체이널리시스는 ‘동아시아 가상자산 도입 보고서(East Asia Crypto Adoption Report)’를 통해 한국 가상자산 경제 규모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3% 성장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같은 기간 일본(2283억달러), 홍콩(1922억달러), 중국(1763억달러), 대만(1404억달러)보다 큰 규모다.

국내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활동은 이 기간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했고, 거래소 관련 자금 흐름은 511억달러 늘었다고도 분석했다.

보고서는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한국시



체이널리시스는 ‘동아시아 가상자산 도입 보고서’를 통해 한국 가상자산 경제 규모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3% 성장했다고 밝혔다. /헛GPT로 생성한 이미지

장이 성장했으며 주요 금융기관은 아직 본격 진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주요 원화 가상자산 중 주요 테마형 자산 거래에서 월드코인(WLD) 등 인공지능(AI) 관련 가상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8%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홍콩은 기관 대상 플랫폼을 통한 자금 유입이 전체 가상자산 서비스 유

입액의 16%를 차지했다.

일본에서는 탈중앙화거래소(DEX)가 전체 가상자산 서비스 시장의 34.5%에 달했다.

중국에서는 전체 가상자산 경제의 59.1%가 개인 간 자금 흐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김아영 기자 aykim@

“AI 수혜주·소비주 양극화 전략 바꿀 때”

BofA, AI 투자 쏠림에 경고

인공지능(AI) 수혜주를 사고 경기소비 관련주를 파는 투자로 ‘쉬운 돈’을 버는 시기는 끝나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사비타 서브라마니안이 이끄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전략가들은 5일(현지 시간) 고객 메모에서 “AI 자본지출(CapEx) 수혜주를 사고 소비 테마를 파는 데서 얻는 초과수익은 앞으로 더 얻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서브라마니안은 “미국 소비자의 소비 욕구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위험하고, 자본지출의 강세는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제 선별적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라고 말했다.

풍부한 AI 투자와 화이트칼라 일자리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이라는 두 흐름이 이미 투자자들의 포지션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BofA 분석에 따르면 액티브 펀드들의 포지션은 IT 서비스, 소비자 금융, 소프트웨어 등 ‘AI 피해 업종’에서 사상 최저 수준에 가깝다.

반면 경기소비재 대비 산업재 포지션은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펀드매니저들이 가장 큰 폭으로 비중을 늘린 업종은 전자장비·기기·부품이다.

서브라마니안은 AI로 고임금 일자리가 위협받으면서 화이트칼라 전문직의 소비 하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실제로 지난 12개월간 S&P 500 필수소비재 지수는 4.6% 오른 반면 경기소비재 지수는 3.3% 떨어졌다. 롤루레몬과 나이키 주가는 1년간 각각 약 50% 하락했다.

이번 진단은 BofA가 1년 가까이 유지해온 투자 논리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

BofA는 지난해 11월 내놓은 연간 전망에서 “소비지출보다 자본지출을 선호한다”며 AI 관련 지출이 시장의 ‘명행수’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김아영 기자

서학개미, 반도체 레버리지 팔고 국채·배당주로 눈 돌렸다

해외주식 Click

미국 주식 매수세 두 달 연속 둔화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매수세가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둔화했다. 반도체 개별주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공격적인 투자 상품에서는 자금을 빼는 반면, 단기 미국 국채와 배당주 등으로 투자처를 분산하는 모습이다. 고금리 환경에서 시세차익보다 이자와 배당을 통한 현금흐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결제액은 10억128만달러(약 1조3653억원)에 그쳤다. 8월 19억6234만달러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고, 7월 46억4241만달러와 비교하면 78.4% 감소했다.

반도체 관련 상품에서는 투자심리 변화가 더욱 뚜렷했다. 반도체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배 ETF’(SOXL)는 지난달 10억8270만달러 순매도됐다. 지난 8월 12억3367만달러 순매도에 이어 두 달 연속 매도 우위를 기록한 것

이다.

반도체 개별 종목에서도 매도세가 이어졌다. 지난달 국내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 미국주식에탁증서(ADR)를 1억8849만달러 순매도했다.

반대로 반도체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에는 자금이 유입됐다. 반도체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역으로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베어 3배 ETF’(SOXS)는 지난달 1억3883만달러 순매수됐다. 8월 순매수액 3571만달러와 비교하면 약 3.9배 늘어난 수준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에 노조 반발

“예산·조직 통제, 감독 독립성 훼손”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하는 대신 경영관리와 감독업무 쇄신을 요구한 가운데 금감원 노동조합이 구체적인 이행 방식에 반대하고 나섰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예산·조직 통제와 일률적인 경영평가가 강화되면 금융감독이 정부 정책에 좌우되고 새로운 금융위험에 대응할 역량도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노조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공기관 지정 유보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사실상 직접 적용하는 수준의 금감원 혁신지침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의 기본 방향은 금감원의 감독업무 자율성을 고려하되,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공운위는 지난 1월 29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조건부로 유보하면서 기타 공공기관 이상으로 주무부처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허정윤 기자

‘생산인구 급감’ 대응… 지역 일자리·유연근무 확산 등 필요

경사노위 ‘1단계 공론화 추진결과’
4600여건 의견 기반 6대 과제 선정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 온라인 투표
15개 문항 중 13개 찬성률 77% 넘어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의 급감에 맞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산업 육성’이 꼽혔다. 또 세대 간 소통과 유연근무 확산 등도 인구절벽에 따른 노동시장 공백을 메울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6일 ‘1단계 공론화 추진 결과’를 발표하고, 6대 핵심 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공론화 특위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지형 경사노위노동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뉴시스

노동계·경영계·정부·공익위원 등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위는 숙의토론 돌입에 앞서 온라인 사전 인식조사와 시민 1대1 대화 등을 진행했다. 7월24일부터 8월 8일까지 실시된 온라인 투표에 총 878명이 참여했다.

온라인 투표에서는 청년과 고령자가 함

께 일할 수 있는 고용체제와 관련한 15개 문항에 대해 찬반을 물었다. 13개 문항에서 찬성률이 77%를 넘겼다.

특히 고령 숙련자가 청년·후배에게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직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항과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95.3%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반면 고령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더라도 임금 수준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는 문항은 59.6%로 가장 낮았다.

공론화 특위는 이 같은 사전 공론을 거쳐 두 차례 숙의토론회를 진행했다. 이후 4600여 건의 의견을 토대로 10대 과제를 정리한 뒤, 토론회 참여 시민 277명을 대상으로 핵심과제 선정 조사를 실시했다.

평생일자리 분야에서는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산업 육성’을 선택한 비중이 74.3%로 가장 높았다.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과 생애주기별 근무환경 조성’은 65.8%,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강화’는 61.4%였다.

상생일자리 분야에서는 ‘세대 간 소통·조직문화와 사회적 합의·갈등 조정 방안’이 66.2%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멘토링 등을 통한 ‘세대 간 숙련·기술의 상호전수와 협업형 일자리 확산’이 65.4%,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가 64.7%였다.

이에 따라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산업 육성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과 생애주기별 근무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강화 ▲세대 간 소통·조직문화와 사회적 합의·갈등 조정 방안 ▲세대 간 숙련·기술의 상호전수와 협업형 일자리 확산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 등이 6대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공론화 특위는 9월 24~25일 기간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시민대표 100명이 참여하는 2단계 집중공론을 진행한다. 여기서는 1단계에서 선정된 6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또 10월14일 시민대표 30명이 참여하는 3단계 종합공론을 통해 시민제안서를 작성한다. 이어 12월8일 최종 공론을 거쳐 제안서를 공론화 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권익위 “월성원전 주민 안전 우려 해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편성·집행
마을 노후 재난 대응 물자 즉시 교체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 경북 포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의 안전시설 보강 민원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포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19개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 고충민원에 대해 관계기관 간 서면 조정을 거쳐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경상북도는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항시가 포함됨에 따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를 포항시에 교부해왔다. 그러나 포항시가 이 예산의 80%를 일반회계로 편성·집행하면서

수입과 지출의 명확한 확인이 어려웠고, 실제 주민 방재 사업에 적정하게 쓰였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아울러 해당 구역 내 마을의 재난 경보 장비와 대응 물자가 노후화된 데다, 방사능 비상 상황 발생 시 다수 차량이 동시에 대피할 경우 교통 정체로 인한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4월 권익위에 예산 교부·집행 현황 확인 및 방재 시설 보강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된 최종 조정안에 따르면, 포항시는 앞으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교부받아 해당 자원 전액을 ‘특별회계’로 편성 및 집행하

기로 했다.

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마을의 노후 재난 대응 물자를 즉시 교체하고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을 설치·보수·관리한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비상시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대피로 보강 및 구축 등 도로 건설·관리계획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포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들의 안전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사전 방송 시스템과 대응 물자, 비상대피로를 보강해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비함으로써 주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서부발전, AI 활용 유연탄 수입·재고 관리

통합관제시스템 본격 운영

한국서부발전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발전용 유연탄의 수입부터 저탄장 재고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예측·관리하는 통합관제 체계를 구축했다.

서부발전은 ‘유연탄 수입·재고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당초 10월 말 완료 예정이었으나 핵심 기능을 조기 개통해

구축 시점을 한 달 앞당겼다.

이번 시스템은 기존의 선박운항일정자동화 예측시스템(ETA-Pro)을 외항 대기와 하역, 저탄장 재고 관리까지 확장한 것이다. 그동안 기상 악화나 항만 혼잡 등 변수가 생기면 담당자의 경험과 엑셀 집계에 의존하던 방식을 AI와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했다.

시스템은 AIS(선박자동식별장치)로 위치를 30분마다 갱신하고 생성형 AI로 도

착 시간을 예측한다. 특히 각 단계의 예측 결과를 연결하는 ‘연쇄 예측’ 기능을 탑재해 선박 지연 시 저탄장 재고 전망까지 자동 재계산한다. 이를 통해 유연탄 소모 시점을 최대 90일까지 예측하고 안전재고 미달 예상 시 경보를 발송한다.

외부 용역 없이 연료 조달 부서와 AI 전환 부서, 태안발전본부 간 사내 협업으로 자체 개발한 점도 특징이다. 대규모 데이터 구축 없이도 모델을 고도화하는 ‘퓨샷(Few-shot)’ 방식을 적용했다. 서부발전은 핵심 기술인 ‘선박 도착 예측·알림 알고리즘’의 특허 출원을 추진 중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경기 과천 소재 한국마사회.

마사회는 그간 마사회는 직무중심의 투명한 인재육성 체계 고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세종=김연세 기자

마사회,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 인증

공정한 HR 시스템 구축 등 노력

한국마사회가 ‘2026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인증제는 교육부·인사혁신처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주관한다. 인적자원관리(HRM) 및 인적자원개발

(HRD) 체계가 우수한 공공기관을 심사해 범정부 차원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마사회는 10년 전인 2016년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그 이후 조직의 역량 강화와 공정한 HR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다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한돈자조금, 10개 파트너사와 점점 확대

‘한돈 파트너십’ 통해 인증패 전달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올해 새롭게 출범한 ‘한돈 파트너십’을 통해 한돈 브랜드와 기업 간 협력 확대에 나선다.

한돈자조금은 이날 초 ‘2026 한돈데이(10월1일) 기념식’을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히고, 한돈을 대표하는 육가공 브랜드 10개사에 파트너십 인증패를 전달했다.

참여 기업은 공식 후원사 명칭과 전용 엠블럼을 활용할 수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소비자가 일상 속에서 한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간다는 계획이다.

한돈자조금 “한돈데이를 기점으로 국민과 한돈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100일간 다양한 소비촉진 및 나눔 활동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한돈으로 더 가까워지는 100일’을 주제로,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30곳 이상의 한돈 맛집과 지역의 특색 있는 식문화를 연결하는 K-포크 한돈벨트



를 추진한다. 소비자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국 한돈 할인판매회 확대한다.

또 전국 각지의 돼지고기 축제와 지역축제에 한돈을 연계해 시식·홍보 등을 통한 지역축제 연계 한돈 소비촉진 활동을 전개한다. 김장철을 비롯한 나눔의 계절에는 전국 곳곳의 소외된 이웃에게 한돈을 전달하는 전국 한돈 나눔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기홍 한돈자조금 위원장(사진)은 “한돈데이를 하루의 기념행사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 100일간 전국 곳곳에서 소비자와 직접 만나고 한돈의 맛과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K-포크 한돈벨트를 비롯한 소비촉진 캠페인과 유통·외식업계 등 여러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과의 접점을 더욱 넓히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한돈산업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산업인력공단, 국가전문자격 시험자료 개방

시험문제·최종정답, AI 학습 활용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전문자격 시험문제지 및 최종 정답을 인공지능(AI) 학습·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을 늘린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4월 37개 국가전문자격 시험문제지와 최종정답에 ‘공공누리 제1 유형’을 적용한 데 이어 8월 ‘AI 유형’을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누리 제1 유형은 출처를 표시하면 상업적 이용은 물론 저작물의 변경·가공과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이 가능한 방식이다. AI 유형은 공공데이터를 AI 학습·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이다.

공단은 그동안 쿼넷(Q-Net)을 통해 국가전문자격 시험문제지와 최종정답을 공개해 왔다. 이번 개방 확대에 따라 공공누

리 홈페이지에서도 국가전문자격 시험자료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공누리 제1 유형 적용 이후에는 국가전문자격 시험자료를 재가공하거나 민간 서비스에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국가전문자격 시험문제는 온라인 문제는행과 모바일학습 애플리케이션, 전자책, AI 해설 등 다양한 민간 교육·학습 콘텐츠에 활용되고 있다.

공단은 국가전문자격 시험자료 개방을 통해 교육·학습 콘텐츠와 AI 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저작물의 재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훈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국가전문자격 공공데이터 개방이 많은 국민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지속하겠다.” /세종=김연세 기자

기업의 비즈니스를 더 특별하게

출장부터 기업행사까지, S&Miles가 함께합니다

기업 맞춤 MICE · 인센티브 전문 여행사 S&Miles



철강·금속 산업 전문성

산업 특성을 이해한 전문 노하우로
최적의 출장·행사 서비스 제공.



해외 네트워크

전 세계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기업 맞춤 일정 설계

목적과 예산에 맞춘 최적의 일정과
프로그램 설계



24시간 지원 서비스

현지 긴급 지원 및 상담 서비스로
안심 비즈니스 지원



현지 운영 지원

숙련된 현지 운영팀이 행사 전 과정
원활하게 관리

기업 맞춤 인센티브 투어

목적과 예산에 최적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기업 골프 행사

기업의 목적에 맞는 골프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고객사 사은 행사

고객 관계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해외 워크숍·세미나

항공·호텔·회의·관광까지 원스톱으로
완벽하게 관리합니다.

기획 → 항공 → 호텔 → 현지 운영 → 귀국

ONE STOP 서비스!

2026 글로벌 산업 전시회

항공 + 호텔 + 여행자보험 패키지로 편리하게!



아시아 대표 금속가공 전시회

MWCS 2026
CIIF 동시 개최



상하이(Shanghai) · 중국

2026. 10.12(월)~10.16(금)

National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Shanghai)
국가전람중심 (NECC)

1인 129만 원~

4박 5일 기준 / 조건에 따라 변동



일본 최대 공작기계 전문 전시회

JIMTOF
2026



도쿄(Tokyo) · 일본

2026. 10.26(월)~10.31(토)

Tokyo Big Sight (도쿄 빅 사이트)
전시장 : 전관 (East & West Halls)

1인 155만 원~

5박 6일 기준 / 조건에 따라 변동



세계 밸브 산업의 중심

VALVE WORLD
EXPO 2026



뒤셀도르프(Düsseldorf) · 독일

2026. 12.01(화)~12.03(목)

Messe Düsseldorf
HALL 1 · HALL 3

1인 215만 원~

3박 4일 기준 / 조건에 따라 변동

상기 요금은 기준 출발일 및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항공·호텔 예약 상황에 따라 실제 견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업전문 여행사

기업 출장 · 인센티브 · MICE S&Miles와 상담하세요!

맞춤 기획서 · 견적 무료 컨설팅!

☎ 02-3487-2800
@ smkang@snmiles.com
www.snmiles.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20



에스앤마일즈 여행사

고양시, e스포츠·게임 키운다… 5개년 로드맵 마련 착수

8개월간 8000만원 투입해 연구 경기장 조성 건립 전제는 아나 재정 부담·인프라 비교 후 결정

고양시가 e스포츠 경기장 조성 여부와 게임산업 육성 방안을 함께 담은 5개년 전략마련에 나선다. 시설 건립을 앞세우기보다 지역 수요와 사업성을 검증한 뒤 기업·구단·인재·콘텐츠를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고양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연구비 5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투입해 '고양시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게임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연구에 착수해 약 8개월간 진행하며 내년 상반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할 '고양형 e스포츠·게임산업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2026년도 정부예산 국회심의 과정에서 지역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문체부 정책연구비가 반영되면서



민경선 고양시장.

추진됐다. 당초 전용 연습센터와 소규모 경기장 설치 타당성 검토가 목적이었지만 고양시는 연구 범위를 e스포츠와 게임산업 전반의 중장기 육성 전략으로 확대했다.

연구에서는 국내외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고양시의 산업기반과 입지 및 인프라를 진단한다. 시민과 청소년은 물론 기업과 구단의 의견도 수렴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경기장 조성은 건립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용 수요와 조성·운영비용을 비롯해 적정 규모와 입지 및 운영 방식과 중장기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기존 공공시설 활용과 소규모 경기장 및 전용 연습공간 조성 그리고 민간시설 연계 등 대안도 비교해 향후 시설 조성 여부를 결정할 근거를 마련한다.

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기업·구단 유치

와 국내외 e스포츠 대회 활성화 및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킨텍스와 2028년 개관 예정인 연면적 5, 198㎡ 규모의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를 활용해 e스포츠 대회와 콘텐츠 제작·전시·체험 및 기업지원 기능을 연계하는 방안도 살핀다.

연구 결과에는 산업육성 비전과 정책 목표 및 분야별 추진전략과 연차별 실행 계획을 담는다. 사업별 추진주체와 예산 및 성과지표를 구체화하고 문체부·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와 민간 기업·구단의 협력 및 민간재원 활용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e스포츠는 경기를 넘어 게임과 콘텐츠, 미디어, 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 새로운 산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 여건과 실제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고양시에 적합한 e스포츠·게임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metroseoul.co.kr



metro

경북도, '문화의 다보스'로 경주 육성

세계경주포럼 개막 전 '비전선언식' APEC 성과, 문화분야 국제협력 연결

경북도는 7일 경주 라한호텔에서 '2026 세계경주포럼 비전선언식'을 열고 경주를 세계 문화의례를 논의하는 '문화의 다보스'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을 선포한다.

비전선언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경북도·경주시·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함께하는 '2026 세계경주포럼' 개막을 하루 앞두고 열린다. 경북도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과를 문화 분야 국제협력으로 이어가고 경주를 글로벌 문화·지식 플랫폼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비전선언에는 ▲세계 문화 의제가 축적되는 지식·정책 플랫폼 육성 ▲대한민국 대표 문화포럼 위상 확립 ▲2025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과와 유산의 문화 분야 국제협력 계승 ▲경북 역사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한 K-컬처·K-헤리티지 세계 확

산 ▲정부·국제기구·학계·산업계와 협력한 지속 가능한 글로벌 운영체계 구축 등 '경주 아젠다'의 방향을 담는다.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남영 경주시장,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김석기 국회의원 등 문화·학계·산업계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다.

유철균 경북연구원장은 포럼의 의미와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역사문화도시 경주, 왜 다보스가 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기조연설한다. 이어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을 좌장으로 유홍준 관장, 유철균 원장, 김재수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함성득 경기대 부총장, 천경진 제주포럼 사무국장이 세계경주포럼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세계경주포럼은 8일부터 9일까지 경주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리며 'AI와 전통의 융합', '경북 문화자산의 현대화', '한류와 문화창의산업'을 주제로 특별세션을 운영한다.

/경주(경북)=김준한 기자 kih9@

경남도, 마린나선박 정비사 교육생 모집

해양레저관광 전문 인력 양성사업

경남도는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산업에 필요한 현장 인력을 키우기 위해 '경남 해양레저관광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시작하고, 마린나선박 정비사 국가자격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 과정은 '선외기 정비사' 과정과 '선내기 정비사' 과정으로 나뉜다. 교육은 통영해양스포츠센터에서 진행하며 통영시요트협회와 경기해양인력양성센터가 주관한다.

모집 인원은 과정별 16명씩이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선외기 정비사 과정은 10월 12일, 선내기 정비사 과정은 11월 12일까지 통영요트학교 누리집에서 신

청할 수 있다. 경남도민에게는 교육비 50% 할인 혜택을 준다.

경남도에 따르면 남해안은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조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설 운영과 관리를 맡을 전문 인력 교육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다.

김상원 도관광개발국장은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인프라가 확대되는 만큼 이를 운영하고 성장시킬 전문 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남이 남부권 해양레저관광 전문 인력 양성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거점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2026 포항 지구촌 엑스포' 현장 모습

15개국 참여 '포항 지구촌 엑스포' 성료

각국 문화 체험·소통 중심 진행

포항시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영일대해수욕장 장미원 일원에서 열린 '2026 포항 지구촌 엑스포'를 시민과 외국인 주민, 관광객의 참여 속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세계 각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소통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PLAY THE WORLD, CONNECT POHANG(세상을 연주하며, 포항을 연결하다)'을 슬로건으로 열린 행사에는 외

국인 주민 커뮤니티가 참여한 15개국 세계문화부스와 세계 베이커리존이 마련됐다. 내·외국인 참가자가 한 팀을 이뤄 겨루는 글로벌 대항전도 진행됐다.

행사장 입구에는 공항 출구장을 연상시키는 공간을 설치하고 방문객에게 여권 모양의 행사 안내서를 제공했다. 방문객들은 안내서를 들고 각국 문화부스를 둘러보고 대형 지구본 포토존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등 세계여행을 주제로 한 축제를 즐겼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18곳 경영실적 평가

신용보증재단, 금융안전망 역할 여성정책개발원, 신규사업 발굴

경북도가 18개 산하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최우수인 S등급을 받았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경북연구원장도 기관장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에 올랐으며 평가 결과는 재정지원과 기관장 연임 심사 등에 반영된다.

경북도는 6일 '2026년 공공기관과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경영실적을 대상으로 18개 기관의 경영성과와 운영 수준을 살폈다.

S등급을 받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역

대 최대 규모의 보증공급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안전망 역할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재단은 올해 지방공공기관 발전 유공 대통령표창도 수상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아동정책과 저출생 극복 및 일·생활 균형 지원 등도 정 현안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확장해 여성·가족친화적 고용환경을 넓힌 성과도 인정받았다.

A+등급에는 경북연구원과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및 경북테크노파크가 이름을 올렸다. 경북연구원은 AX센터를 신설해 인공지능 기반 정책연구를 확대하고 시군 현장과 연계한 연구체계를 구축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김준한 기자

지역 이모저모

사천시

폐기물처리업체 특별점검

사천시는 오는 11월 13일까지 사업장 내 폐기물 방치와 빈 공장·임야 등의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2026년 하반기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25개소와 빈 공장, 임야 등이다. 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하용 보관량 초과, 허가 부지 외 보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가입 여부와 현장 정보 전송기기 설치·전송 여부도 확인한다. 빈 공장과 임야에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진도군

9일부터 보배섬 문화예술제

'2026 진도군 보배섬 문화예술제'가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도 칠마광장 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번 문화예술제는 진도가 보유한 다양한 민속예술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행사로, ▲무형유산 공개행사 ▲K-민속문화야행 ▲진도 실버가요제 ▲진도 북 페스티벌 ▲진도 보배섬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진도(전남광주)=이대호 기자 eogh7505@

인천관광공사

강화군 백패킹 페스티벌 갯섬

강화군과 인천관광공사는 다가오는 가을 시즌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간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 일원에서 아웃도어 축제 '2026 강화군 백패킹 페스티벌 갯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그동안 당일 방문 위주였던 강화도 관광을 '자연 속에서 온전히 머무는' 체류형 관광으로 확장하고자 기획됐다. 필수 장비만 배낭에 짊어지고 자연 속을 걷는 '백패킹'은 최근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아웃도어 여가를 즐기려는 웰니스 여행 트렌드로 급부상하며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해명산 능선 트레킹과 갯벌 러닝을 결합한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구성했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부산시설공단

윤산터널, AI 기반 안전관리

부산시설공단은 윤산터널에 인공지능(AI) 기반 위험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능형 안전관리 체계를 본격 운영한다. 터널 안 돌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사고 예방과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시스템은 정부 지원사업으로 총 27억원을 투입해 45개월간 민간 전문 기업과 대학 연구진이 함께 개발했다. AI와 CCTV, 레이더를 연계해 정지 차량과 낙하물, 역주행 차량, 보행자 등 다양한 상황을 감지하도록 설계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백화점3사, 외국인 매출 급증… 쇼핑경험·콘텐츠 강화 나서

롯데 업계 최초 외국인 매출 1조
신세계 쇼핑 바우처 등 혜택 마련
현대 AI 쇼핑 어시스턴트 운영

롯데백화점이 국내 백화점 업계 최초로 외국인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올해 누적 외국인 매출이 8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연내 1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백화점의 주요 고객층으로 자리 잡으면서 업계도 전용 멤버십과 쇼핑 혜택, K패션·K푸드 콘텐츠 등을 확대하고 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의 올해 누적 외국인 매출은 이날 오전 1조원을 넘어서었다. 지난해 연간 외국인 매출 7348억원을 지난 7월 이미 넘어선 데 이어 약 9개월 만에 1조원을 돌파했다. 국내 백화점 업계에서 외국인 연간 매출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뒤를 잇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의 올해 1~9월 외국인 매출은 8500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외국인 관광객이 신세계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있다.

/신세계

두 배를 웃돌았다. 현대백화점의 올해 누적 외국인 매출도 8050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증가세가 이어지면 두 회사 모두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매출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다만 업체별 외국인 매출 집계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신세계는 백화점 매출만 집계한 반면 롯데는 아울렛과 몰, 현대는 아울렛 매출을 포함한다.

외국인 매출은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요 점포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본점과 롯데월드몰 등이 포함된 롯데타운 명동에서 올해 약 5200억원의 외국인 매출을 올렸다. 롯데타운 잠실의 외국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했다. 잠실 외국인 매출 가운데 미주·유럽 고객 비중은 35%로 2019년보다 15%포인트 높아졌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방문객 3명 중 1명이 외국인일 정도로 외국인 비중이 커졌다. 센텀시티점의 외국인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현대백화점에서는 더현대 서울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외국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5% 늘었으며 방문객 4명 중 1명이 외국인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쇼핑 수요는 서울 주요 점포를 넘어 지방으로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롯데백화점의 수도권 외 점포 외국인 매출은 올해 전년 동기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부산 지역 점포는 150%, 전주점과 광주점 등 호남권 점포는 100% 늘었다.

상품별로는 명품과 K패션이 외국인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 롯데백화점의 올해 외국인 명품 매출과 K패션 매출은 각각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식품관과 식당가 외국인 매출도 50% 늘었다. 올해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신진 K패션 브랜드는 100여개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백화점들은 외국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보고 관련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롯데

백화점은 누적 가입자 25만명을 기록한 외국인 전용 '롯데 투어리스트 멤버십'을 온라인에서도 사전 신청할 수 있도록 발급 방식을 확대한다. 외국인 대상 쇼핑 혜택도 대구·대전·전주·포항 등 지방 주요 점포로 넓힐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1일까지 본점과 강남점, 센텀시티점, 타임스퀘어점에서 외국인 대상 '신세계 글로벌 쇼핑 페스타'를 진행한다. 패션·뷰티·K푸드 등 120개 브랜드와 결제·세금환급 업체가 참여해 상품권과 쇼핑 바우처, 세금 환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백화점은 AI 쇼핑 어시스턴트 '헤이디 글로벌'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고객과 직원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통역하는 음성 번역 기능을 추가했다. 태국 시암 피wat 그룹과 일본 한큐백화점,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등 해외 유통·관광 사업자와 제휴해 외국인 VIP 고객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현대백, '더현대 글로벌' 유럽시장 본격 진출

프랑스 파리에 팝업 스토어 운영
북미 등 플래그십 매장 구축 계획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K콘텐츠 수출 플랫폼 '더현대 글로벌'이 아시아를 넘어 프랑스 파리에 진출한다.

현대백화점은 현지시간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갤러리 라파예트(Galleries Lafayette)' 백화점 오스만점 본관 3층에서 더현대 글로벌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갤러리 라파예트는 130년 역사의 유럽 백화점 체인으로, 파리 중심부에 위치한 오스만 본점에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와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등이 입점해 있다.

더현대 글로벌 팝업스토어는 약 79㎡(24평) 규모로 조성된다. 디자이너 브랜드 '김해김(KIMH?KIM)', '라이(R ERHEE)', '라이(LIE)', '프리터(FRITUR)', '더일마(THE ILMA)' 등 총 5개의 K패션 브랜드 상품을 선보인다. 팝업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갤러리 라파예트(Galleries Lafayette)' 백화점에서 진행되는 '더현대 글로벌' 팝업 대표 이미지. /현대백화점그룹

토어는 에스컬레이터 입구 옆 공간에 마련되며, 주변에는 프랑스 컨템포러리 브랜드 '산드로(Sandro)', '아페세(A.P. C.)' 등의 매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더현대 글로벌 팝업스토어는 한국 콘텐츠진흥원과 협업해 운영한다. 현대백화점은 행사 기획과 상품 운송, 프랑스 파리 현지 매장 운영 등을 담당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참여 브랜드 지원과 유럽

현지 홍보 등을 맡는다.

K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등 국내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더현대 글로벌은 지난 2024년 일본 도쿄를 시작으로 오사카, 나고야를 비롯해 대만 타이베이, 타이중 등 아시아 주요 도시에 팝업스토어와 플래그십 매장을 열었다.

지난 7월 도쿄 오모테산도 거리에 위치한 오토카도에 문을 연 플래그십 매장은 목표 매출을 30% 초과 달성하고 있다. 시부야 파르코와 대만 신광미즈코시 백화점에서 진행한 팝업스토어는 해당 점포 역대 팝업 중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현대백화점은 이번 파리 팝업스토어를 계기로 유럽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백화점은 이번 더현대 글로벌 파리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해외 사업을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아시아를 비롯해 유럽·북미 등에 총 10여 개의 더현대 글로벌 플래그십 매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롯데리아 '리아는 배불린' 성료

롯데리아가 버거를 형상화한 5km 코스를 달리는 이색 러닝 행사를 열고 고객과의 접점을 넓혔다.

롯데GRS가 운영하는 롯데리아는 지난 4일 서울어린이대공원 일대에서 '2026 리아는 배불린'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선보인 행사로 기록 경쟁 대신 참가자 간 소통과 현장 이벤트에 초점을 맞췄다. 롯데리아 자사 앱 '롯데잇츠'를 통해 판매한 티켓은 행사 전 전량 매진됐다.

약 2000명의 참가자들은 사전 러닝 성향 진단을 바탕으로 그룹을 나눠 참여했다. 완주 이후에는 러닝룩을 기준으로 참가자를 선정하는 '스타일 어워즈'를 비롯해 레크리에이션과 럭키드로우 등이 진행됐다.

/신원선 기자

정관장, 레드부스터스 홈경기 이벤트 확대

출석 챌린지 통해 유니폼 등 경품 제공

한국 남녀 농구 대표팀이 아시아안개임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따내면서 국내 프로 농구에도 흥행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프로농구 정관장 레드부스터스는 홈경기 이벤트를 확대하며 높아진 농구 열기를 팬 확보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정관장 레드부스터스는 지난 3일 홈 개막전에서 5000명에 가까운 관중을 기록하며 매진을 달성했다. 이날 현대모비스를 꺾고 홈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이어 5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가스공사와의 경기에서도 승리하며 개막 2연승을 거뒀다. 아시아안개임 금메달의 주역인 변준형 선수도 개막전부터 활약했다. 변준형은 현대모비스전에서 국내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며 대표팀에서 이어진 경기력을 선보였다.

정관장은 올 시즌 홈경기를 중심으로 팬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홈 개막전에서는 입장객 전원에게 '홍삼톤 더블샷'을 웰컴 기프트로 제공했다. 홈경기 직관 인증 팬에게는 전국 정관장 매장과 정관장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증정한다. 10월에는 홈경기 출석 챌린지를 통해 4경기 출석 시 '정관장 갖차 경품', 7경기 출석 시 선수 친필사인 어센틱 유니폼을 제공한다.

정관장 관계자는 "정관장 선수단뿐만 아니라 농구장을 찾아주시는 많은 팬들에게도 정관장 홍삼을 통해 다양한 즐거움과 건강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농심 "신라면 40주년 한정판 투표해주세요"

‘치즈&된장·해물&어묵’ 후보

농심이 신라면 출시 40주년을 맞아 소비자 투표로 특별 신제품을 선정한다. 에드워드 리 셰프와 농심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두 가지 레시피를 후보로 내놓고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최종 출시 제품을 결정한다.

후보는 '신라면 치즈&된장'과 '신라면 해물&어묵'이다. 치즈&된장은 치즈의 부드러운 풍미와 된장의 구수한 맛을 신라면에 접목했다. 해물&어묵은 시골과 해산물, 채소를 활용한 육수에 신라면의 매운 맛과 어묵 풍미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GS샵, 11일부터 '판타지이즈' 쇼핑 행사

10일까지 행사 알림 사전 이벤트

GS샵이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인기 브랜드와 할인 혜택을 모은 하반기 쇼핑 행사 '판타지이즈'를 개최한다.

GS샵은 '판타지이즈'가 열리는 2주간 전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TV홈쇼핑 상품을 2개 이상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적립금 또는 올리브오일을 증정한다. 또한 18일과 25일에는 TV홈쇼핑 상품 구매 시 카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CJ제일제당 'CJ더마켓' 마스코트 공개

CJ제일제당의 자사몰 CJ더마켓이 공식 마스코트를 선보이고 고객 참여형 작명 이벤트를 진행한다. 캐릭터를 상품·혜택 안내와 맞춤형 추천 등 자사몰 서비스 전반에 활용해 고객과의 접점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CJ더마켓의 공식 마스코트를 공개하고 오는 21일까지 '더마켓 신임작 명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

온라인 투표는 6일부터 18일까지 농심 홈페이지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다. 오프라인에서는 서울 성수동 '신라면 분식' 팝업에서 두 제품을 직접 맛본 뒤 선택하는 시식 투표도 실시한다. 농심은 외부 소비자 평가 결과까지 종합해 최종 제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제품은 오는 11월 말 정식 출시되며 내년 1분기까지 한정 판매된다. 농심은 이번 투표를 통해 소비자가 신라면의 새로운 맛을 직접 선택하도록 해 40주년 기념 제품의 의미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이번 '판타지이즈'에는 개그맨 박명수가 '쇼핑의 왕자' 콘셉트로 홍보 영상에 등장해 행사 주요 혜택을 소개한다. GS샵은 박명수가 출연한 콘텐츠 시리즈를 제작해 GS리테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본 행사에 앞서 오는 10일까지 사전 이벤트도 진행한다. GS샵 앱에서 '판타지이즈' 행사 알림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룰렛 이벤트를 열어 경품과 적립금,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seoh@

했다.

고객은 CJ더마켓에서 마스코트 이름을 직접 제안하거나 후보 이름에 투표할 수 있다.

마스코트는 CJ더마켓의 장보기 메이트를 콘셉트로 제작됐다. 핫반, 비비고 만두, 스팸 등 CJ제일제당 제품이 있는 '더마켓 빌리지'에 별뿔별처럼 떨어진 외계 생명체가 장보기 경험을 쌓으며 상품과 음식 조합, 고객 취향 등을 파악하는 쇼핑 파트너로 성장한다는 세계관을 담았다.

/신원선 기자

K-바이오, 임상시험 넘어 진료현장 ‘실사용 데이터’ 쌓는다

국내외 규제 특구·신규 제도 활용
바이오솔루션, 중국 본토 진출
바이젠셀, ‘VT-EBV-N’ 치료

국내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업들이 임상시험 단계를 넘어 국내외 규제 특구 및 신규 제도를 활용해 실사용데이터(RWD)와 실사용근거(RWE)를 축적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선 조기 상업화와 현지 시장 안착에 중점을 둔 가운데, 국내에선 임상 결과를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1호 치료가 본격 개시되는 등 실제 진료 현장의 데이터 확보가 핵심 경쟁력이 됐다.

6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세포치료제 전문기업 바이오솔루션은 최근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2026 제4회 대만구 세포·유전자치료(CGT) 발전 포럼’에 주최 측 공식 초청 연사로 참가해 중국 본토 진출 행보를 넓혔다.

이번 포럼은 광저우 난사·선전 등 대만구(광둥·홍콩·마카오 광역경제권)의 세포·유전자치료(CGT) 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해 마련됐다. 주요 국제 연사 10인 중 한 명으로 단상에 오른 이정선 대표는 카티라이프의 임상적 성공을 넘어, 연골재생 및 골관절염을 위한 차세대 동종 세포·유전자치료: 카티로이드와 스페로큐어’를 주제로 바이오솔루션의 독자 플랫폼



최근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된 ‘2026 제4회 대만구 세포·유전자치료(CGT) 발전 포럼’에서 바이오솔루션이 소개되고 있다. /바이오솔루션.

어’를 주제로 바이오솔루션의 독자 플랫폼

실제로 바이오솔루션의 연골재생 세포 치료제 카티라이프는 지난 4월 중국 하인안 보아오 러청 국제의료관광선행구역에서 판매승인을 획득한 데 이어 8월 현지에서 첫 환자 치료를 시작하며 상업화 단계에 진입했다.

이와 함께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스페로큐어’ 임상1/2a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스페로큐어는 주사용 3차원 미세 구형 연골치료제로 바이오솔루션의 후속 핵심 파이프라인이다.

바이오솔루션 측은 “중국 포럼 기간 현지 기업 및 학계와 미팅을 가졌다”며 “하

이난에서의 사업화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규제 및 임상 연구 경로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중국 현지 특구를 활용한 우회 상용화 전략이 활발한 한편, 신약개발 전문기업 바이젠셀은 국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고 있다.

바이젠셀은 지난달 1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자가 면역세포치료제 ‘VT-EBV-N’을 도입한 치료를 시작하며 국내 첫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본격화했다. 이는 식약처의 상업용 임상시험 결과를 보건복지부 소관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근거로 추진된 가허형 규제샌드

박스 1호 승인 사례다.

바이젠셀은 임상 2상에서 2년 무질병 생존율(DFS) 95%를 기록한 유효성에 더해, 향후 2년간 실제 진료 현장에서 축적될 실사용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하며 조건부 품목허가와 조기 상업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이젠셀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검증하는 데이터와 생산·공급 역량을 발판 삼아 중국, 동남아, 유럽을 대상으로 공동개발, 환자 유치 전략 등을 위한 기반도 다진다는 복안이다.

특히 ‘VT-EBV-N’이 표적하는 NK/T 세포림프종은 아시아 지역 발생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비호지킨림프종 유병자는 약 25만 명에 달하며, 이 중 NK/T 세포 림프종 비중이 높아 중국은 임상 및 상업화의 핵심 대상 지역으로 꼽힌다.

국내 한 바이오텍 관계자는 “국내의 실제 현장 치료 데이터를 선제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생체 재료 특성상 초기 임상적 유효성 검증이 필요한 만큼 실증 중심 전략이 까다로운 규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etro

셀트리온, ‘옵리클로’ 美 출시

옵텀 사보험 처방집 선호의약품 등재
의료진·보험사 등 현지 마케팅 본격화

셀트리온이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및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제 ‘옵리클로’를 이달 5일(현지 시간) 미국에 출시했다.

옵리클로는 미국 시장에 처음 진입한 오말리주맙 바이오시밀러로, ‘퍼스트무버’(First Mover)의 빠른 시장 침투 성과를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옵리클로는 출시와 동시에 미국 3대 대형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 중 하나인 ‘옵텀’(Optum)의 사보험 처방집에 선호의약품(preferred drug)으로 등재됐다. 이는 판매 가능 채널을 확보한 단계로, 셀트리온은 실제 처방 확대를 위해 의료진·보험사·유통 채널 등을 대상으로 한 현지 마케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다른 대형 PBM들과의 협상도 진행 중이며, 일부 협상은 계약 체결 막바지 단



셀트리온 ‘옵리클로’

계다.

옵리클로는 미국에서 오리지널 제품 대비 약 15% 낮은 도매가격(WAC)으로 출시됐다. 75mg·150mg·300mg 등 3개 용량 제형을 갖춰 환자와 치료 환경에 따른 다양한 투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옵리클로는 지난해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천식(Asthma), 비염을 동반한 만성비부비동염,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IgE 매개 식품 알레르기 등 오리지널 의약품이 미국에서 보유한 전체 적응증에 대한 허가를 획득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글로벌 임상 R&D 역량 강화’ 세미나 열린다

제약바이오협회, 내일까지 사전 등록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임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과 규제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실무형 지식 공유의 장이 열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16일 서울 서초에 위치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에서 ‘성공적 글로벌 임상을 위한 R&D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

일 밝혔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임상시험 추진 과정에서 겪는 국가별 규제, 임상시험수탁기관(CRO) 관리, 예산 책정 등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대비해 프로젝트 운영 효율성을 최대화 끌어올릴 실천 솔루션을 제시한다. 모든 세션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제약·바이오 기업 실무자는 오는 8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HLB, ‘라보세라닙’ FDA NDA 리스크 해소

〈신약허가신청〉

완제의약품 제조시설 실사 통과

HLB의 간암 신약 후보물질 ‘리보세라닙’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완제의약품 제조시설 실사를 통과하며 신약허가 신청(NDA) 재제출을 위한 핵심 리스크를 해소했다.

HLB는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중국 파트너사 항서제약으로부터 ‘리보세라닙’ 완제의약품 제조시설 정기 우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 실사가 ‘자발적 시정조치 권고(VAI)’로 최종 종결됐음을 명시한 실사 종료 서한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VAI 관정으로 과거 보완요청서한(CRL) 발급의 주요 원인이었던 화학합성·공장생산·품질관리(CMC)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FDA의 VAI 분류는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 시정 노력을 인정한 것으로 추가적인 공식 규제 조치 없이 실사가 최종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HLB는 리보세라닙 NDA 재제출 및 이후 승인 절차, 상업화 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HLB와 엘레바는 항서제약과 지속 협력하는 가운데, 서류 보완 작업을 이미 막바지 단계까지 마친 상태다.

HLB그룹 관계자는 “이번 VAI 분류는 항서제약이 실사 지적사항 해소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며 “항서제약과 긴밀히 소통해 NDA 재제출을 신속히 추진하고 향후에도 과정에서 차질 없이 대응해 간암 신약 상용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한미약품, 차세대 항암 모달리티 최초 공개

‘디스커버리 온 타겟 2026’ 참가
저분자 약물 접합체 연구결과 발표

한미약품이 기존 항체 약물 접합체(ADC)의 한계를 넘어 종양미세환경(TME)까지 치료 범위를 넓힐 수 있는 혁신적인 차세대 항암 모달리티를 처음 공개했다.

한미사이언스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은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글로벌 학회 ‘디스커버리 온 타겟(Discovery on Target) 2026’에서 차세대 항암 모달리티로 개발 중인 종양미세환경 내 섬유아세포 활성화와 단백질(FAP)을 표적하는 저분자 약물 접합체(SMDC) 연구 결과를 구두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차세대 신약 개발 전략으로 상대적으로 분자 크기가 현저히 작은 SMDC에 주목했다. 특히 SMDC의 종양 조직 및 종양미세환경 침투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표적으로 FAP을 선정했다.

FAP은 종양미세환경을 구성하는 CAF에서 높게 발현되는 단백질로, 대부분의 정상 성인 조직에서는 발현이 제한적인 특징이 있다.

이번 학회에서 한미약품이 발표한 전임상 연구에서는 FAP 발현 세포주를 이식한 마우스 모델에서 SMDC 모달리티의 우수한 항암 효능이 확인됐으며, 특히 체장암 동소이식 마우스 모델에서도 강력한 종양 성장 억제와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관찰됐다.

/이세경 기자

유한양행, ‘CPHI’ 참가

CDMO 경쟁력 적극 홍보

유한양행이 6일부터 8일(현지시간)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박람회 ‘CPHI World wide 2026(이하 CPHI Milan 2026)’에 단독 부스를 마련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다.

유한양행은 이번 밀라노 행사에서 단독 부스를 설치하고 글로벌 파트너사들에게 자사의 우수한 R&D 기술력과 상업화 역량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자회사인 유한화학과의 시너지를 통해 확보한 고품질 원료의약품(API) 생산 인프라와 글로벌 스탠다드(cGMP)를 충족하는 위탁개발생산(CDMO)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현장에는 유한양행의 글로벌 비즈니스, 연구개발(R&D), 해외영업 등 핵심 전문 인력들이 다수 참석해 전 세계 주요 제약사 및 바이오텍과 다각적인 1:1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한다.

/이세경 기자

제일약품, ‘K-VIP’ 선정

제37호 국산 신약 ‘자큐보’ 경쟁력을 입증한 제일약품이 정부와 글로벌 파트너십 협력을 강화하며 해외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제일약품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제2차 제약·바이오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K-VIP)’의 글로벌 학회·전시회·파트너링 행사 참가 지원 분야 수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제일약품은 해외 통상환경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기반을 공고히 다지고 바이오·유럽 2026 등 주요 글로벌 행사에서 다양한 기회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차세대 당뇨병 치료제 ‘JP-2266’, 혁신 항암제 ‘JP9441’ 등 대사·항암질환 영역에서 구축한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을 확대한다. 글로벌 빅파마 및 투자사들과 적극 교류해 공동개발 및 기술수출 기회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동국제약

마데카 기프트 세트 출시

동국제약의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가 브랜드 대표 제품 ‘마데카 크림’ 누적 판매량 1억 개 돌파를 기념해 카오텍 선물하기 전용 ‘마데카 기프트 세트’ 2종을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마데카 프리미엄 컬렉션 기프트 세트’는 기초 스킨케어부터 기미 등 특별 관리까지 아우른다. 항노화 기능을 종합한 마데카 크림 에이징 포커스를 비롯해 엑스퍼트 마데카 펩타이드 토포닉 앰플, 마데카 펩타이드 앰플 캡슐 크림 등을 한 데 담았다.

함께 출시된 ‘마데카 크림 타이틀 리프팅 인텐스 듀오 세트’는 팔사 마사지 도구를 함께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피부 저속 노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분 보충부터 피부선 정돈, 얼굴 전체 탄력 관리까지 3단계 집중 개선에 중점을 뒀다. /이청하 기자

2026 제약 · 바이오 포럼

노화를 되돌리다

역노화 기술이 여는 바이오산업의 미래

2026년 10월 21일(수) 오후2시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6 제약 · 바이오 포럼
주 제 노화를 되돌리다 : 역노화 기술이 여는 바이오산업의 미래
일 시 2026년 10월 21일(수) 14:00~17:1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등 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제약 · 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2시 30분 이후에는 행사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고급 3단 완전자동 양우산을 증정합니다.



● 오시는 길

페럼타워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3층 페럼홀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20	<축사> 백종현 국회의원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근부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5:00	권은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융합연구단장
강연	15:00~15:30	전해민 한미약품 미래성장부문 융합센터 센터장
	15:30~16:00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16:00~16:30	조경아 메디스팬 대표
	16:30~17:00	양재현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교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지역과 방문객 잇는 상생사업 '곳' 선포

카카오가 지역 상권과 방문객을 연결하는 신규 상생 사업 '곳'을 선보인다. 카카오는 공주 지역 가계의 이야기를 담은 '매거진 곳곳 공주'를 발간하고 신규 상생 사업 '곳'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곳'은 카카오가 2022년부터 운영해온 소상공인 지원 사업 '프로젝트 단골'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사업이다. /카카오



에쓰오일, 장애인 자립 돕는 '감동의 마라톤' 후원

에쓰오일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마라톤 대회를 후원하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 지원에 힘을 보탤다. 에쓰오일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감동의 마라톤'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감동의 마라톤'에서 참가자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에쓰오일



롯데백화점, 주류 바이어 첫 '와인 기사' 탄생

롯데백화점은 와인&주류팀 최준호 바이어가 지난달 프랑스 생테밀리옹 지역의 와인 기사 작위인 '쥐라드 드 생테밀리옹(Jurade de Saint-Emilion)'을 수훈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백화점 주류 바이어가 와인 기사 작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쇼핑



광동제약, 비타500 새 얼굴에 '악뮤' 발탁

광동제약은 '비타500'의 신규 모델로 그룹 '악뮤(AKMU)'를 발탁하고, 악뮤가 직접 작성한 메시지를 라벨에 적용한 '비타500 악뮤에디션'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모델로 선정된 악뮤는 독창적인 음악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남매 듀오다. /광동제약

정식품 '당뇨병의 날' 만보걷기 캠페인

정식품이 세계 당뇨병의 날을 앞두고 일상 속 걷기를 통해 혈당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정식품은 6일부터 11월 14일까지 헬스케어 플랫폼 닥터다이어리와 함께 '그린비야 만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1월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계기로 당뇨 환자와 혈당 관리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행사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현대차그룹, 강남 한복판에 '체험형 과학 전시' 첫선

'해브 펀 위드 사이언스' 개막 2032년 GBC 개관 앞두고 팝업

'과학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보는 것(물리학자 프랭크 오펜하이머의 철학)'

현대자동차그룹이 눈으로만 감상하던 기존 전시의 틀을 깨고 자연 현상과 물리 법칙을 온몸으로 확인하는 공간을 서울 강남 한복판에 마련했다.

현대차그룹은 6일 현대 모터스튜디오 오서울 5층에서 팝업 전시 '해브 펀 위드 사이언스(Have Fun with Science)'를 개막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조성하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에 건립할 대규모 체험형 과학관의 사전 검증 전시 공간으로 오는 12월 15일까지 두 달여간 무료로 운영된다.

이번 전시는 현대차그룹이 지난 4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세계적인 과학관 '익스플로라토리오움'과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첫 실체적 결실이다. 1969년 물리학자 프랭크 오펜하이머가 설립한 익스플로라토리오움은 관람객이 직



GBC 체험형 과학관 팝업 전시 '해브 펀 위드 사이언스(Have Fun with Science)' 미디어 프리뷰에서 현대차그룹 HMG브랜드경험담당 지성원 부사장이 발표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접 만지고 실험하는 '핸즈온(Hands-on)' 전시 방식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대표적 과학 교육 거점이다.

이번 팝업은 2032년 완공 예정인 GBC 체험형 과학관 개관에 앞서 국내 방문객의 반응을 살피고 콘텐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장에는 움직임·생태·빛과 소리를 주제로 한 기초 과학 체험형 전시물 12종이 들어섰다.

보드 위에서 균형 감각을 익히는 '아

슬이슬 균형 잡기', 도미노의 연쇄 작용을 활용한 '탈레이 놀이'를 비롯해 사막 능선의 형성 원리를 탐구하는 '바람이 빛아내는 풍경' 등이 대표적이다. 관람객이 직접 회로를 연결해 보거나 회전 운동으로 그림을 그리는 '드로잉 머신 워크숍' 등 상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지성원 현대차그룹 HMG브랜드경험담당 부사장과 앤 리처드슨 익스플

고려아연, 최창걸 '사람·신뢰 경영' 계승

故 최창걸 명예회장 별세 1주기

고려아연이 고(故) 최창걸 명예회장 별세 1주기를 맞아 추모식을 열고 고인의 경영철학을 계승해 새로운 도약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고려아연은 6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최창걸 명예회장 1주기 추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유가족과 이제중 부회장 등 고려아연 및 계열사 임직원, 고인의 지인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박기덕 사장은 추모사에서 "지난 1년간 고려아연은 안팎의 여러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



고려아연이 6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최창걸 명예회장 1주기 추모식을 엄수하고 있다. /고려아연

아갔다"며 "그 과정에서 명예회장님께서 세우신 경영철학과 기업가정신이 오늘의 고려아연을 지탱하는 튼튼한 뿌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누리호, 발사대 기립·고정작업 완료

오늘 다섯 번째 우주 비행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다섯 번째 우주 비행을 하루 앞두고 발사대 기립과 고정 작업을 모두 마쳤다.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35분 기준 누리호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기립 및 고정 작업을 완료했다.

발사체종합조립동에 수평으로 놓여 있던 누리호는 특수 이송차량인 트랜

스포터를 이용해 약 1시간30분 동안 제2발사대로 옮겨졌다. 이후 이렉터를 활용해 수직으로 세우는 작업까지 마쳤다. 이날 오후에는 누리호와 발사대 설비를 연결하고 각 계통의 상태를 확인하는 후속 작업이 진행된다. 상황별 계획상 발사대 설치 절차는 오후 6시 45분쯤 마무리될 예정이다.

발사에정일인 7일에는 실제 비행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김대현 기자 kdh@

현대차그룹, 웹사이트 경쟁력 입증

웹어워드 4개 부문 최우수상

현대자동차그룹은 공식 웹사이트가 미국 웹 마케팅협회(WMA)가 주관하는 '2026 웹어워드 컴퍼티션'에서 자동차·미디어·뉴스·PR 등 4개 산업 부문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전체 출품작 중 하나의 사이트에만 부여되는 최고 등급인 '베스트 오브 쇼'에도 선정됐다.

웹어워드 컴퍼티션은 미국 WMA가 주관하는 글로벌 웹사이트 전문 어워드다. 글로벌 출품작을 86개 산업 카테고리별로 구분해 ▲디자인 ▲혁신성 ▲콘텐츠 ▲기술 등 7개 기준으로 심사

한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3월 공식 웹사이트 디자인·콘텐츠 리뉴얼을 마치고 사용자의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인공지능(AI) 기능을 업데이트했다. 또 소프트웨어·전동화·수소에너지 등 내용이 담긴 '기술 혁신' 메뉴 업데이트를 통해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기술 비전과 산업 리더십을 더욱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AI와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더욱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협약식에 참석한 이호성 하나은행장(왼쪽 두 번째), 류경기 중앙구청장(왼쪽 첫 번째), 박상진 Npay 대표(세 번째), 최항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네 번째)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하나은행

하나은행·네이버, 서울 야간상권 살린다

687억5000만원 보증 지원

하나은행과 네이버가 서울 야간상권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기업을 위해 총 55억원을 출연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687억5000만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한다.

하나은행은 네이버페이(Npay), 네이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야간경제·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 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의 '서울 달빛야

장' 조성사업과 연계해 야간상권 소상공인과 청년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서울 달빛야장으로 선정된 중앙구 상봉역자 골목에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50억원, 네이버와 Npay는 5억원 등 총 55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을 바탕으로 총 687억5000만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하고, 하나은행은 재단이 발급한 보증서를 기반으로 보증부대출을 지원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매콤달콤의 최적 밸런스

리아 불고기 세트

더블 불고기 패티로 든든하게

리아 불고기 더블 레드

NEW

NEW

감자채전 토핑으로 바삭하게

리아 불고기 레드

LOTTERIA™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처벌의 조건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의 안전책임 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었는지도 문제된다. 최근 콘크리트 제품 제조공장에서 천장주행크레인이 고소작업대를 충격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에서 공장장과 현장 관계자들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제조사업부문 대표이사에게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되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6. 8. 25. 선고 2025고단437 판결). 같은 사고를 두고 현장 안전책임과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구분해 판단한 사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현장 관리감독자에게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배치, 출입 통제, 신호 방법 마련 등 구체적인 안전 조치를 요구한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처벌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를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사고 당시 원청 소속 근로자들은 공장 안



약 6미터 높이의 고소작업대에서 우수배관 설치를 위한 표시 작업을 하고 있었다. 같은 구역에서는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리모컨으로 천장주행크레인을 조작해 강연선 다발을 옮겼다. 그러나 양쪽 작업의 시간과 동선이 공유되지 않았고, 크레인 이동 경로와 충돌 위험을 반영한 작업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도 제대로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인이 고소작업대를 들이받아 작업대가 전도됐다.

법원은 공장장이 일반적인 안전수칙을 적은 교육일지를 작업계획서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문서에는 고소작업대와 크레인의 이동 경로, 작업 순서, 충돌 위험 및 방지 방법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공장장과 공무팀 차장에게 작업을 조정하고 현장을 지휘할 의무가 있었으며, 하도급업체 대표와 안전담당자, 크레인 운전자도 작업계획과 신호자 없이 작업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서류와 실제 작업이 어긋날 때 공장장과 실무책임자

의 책임은 무겁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사업부문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회사에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이 있었고, 전사방침이 각 공장의 목표와 교육으로 이어진 자료와 안전보건 관계자 평가기준도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정기 위험성평가에서는 무선 리모컨의 사각지대와 크레인 충돌 위험을 파악했고, 3인1조 작업, 리모컨 화수, 호각 신호 등의 대책도 세웠다. 사고 당일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이사의 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 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다. 그렇다고 안전보건 방침이나 평가표만 만들면 무조건 면책된다는 뜻은 아니다. 기업은 공통 양식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별 위험을 절차에 반영하며, 위험성평가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은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요구하는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했고 실제 이를 이행해왔다면, 설령 현장조치가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곧바로 경영책임자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

에너지 안보, 가격보다 신뢰



기지수첩

원관희
(산업부)

지정학적 갈등으로 에너지의 거래 기준이 바뀌고 있다. 러시아산 가스의 유럽 공급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수송 차질은 기존 공급망이 계속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를 무너뜨렸다. 이제 공급국과의 관계 약화나 수송로 제약으로 계약한 물량을 제때 확보할 수 없게 됐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거래 상대의 신뢰성과 공급망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격과 물량에 더해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공급받을지를 조달 전략의 핵심 사항으로 봐야 한다.

파티비블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이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신뢰'를 꼽은 것도 이런 현실을 짚은 말이다. 국제 정세 급변으로 인해 신뢰 관계를 오랜 거래 관계만으로 판단할 수 없게 됐다. 공급자가 계약을 이행할 능력과 의지를 갖췄는지 확인하고 정책과 정세 변화에 따른 위험을 다시 살펴야 한다. 조달처 다변화도 거래 국가를 늘리는 데서 끝나는 안 된다. 여러 공급처가 같은 수송로에 의존한다면 여전히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대체 물량을 실제로 가져올 권리와 운송 수단까지 확보해야 다변화가 위기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의 역할은 이 지점에서 맞물려야 한다. 정부는 공급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국가 비축과 수송 기반을 뒷받침해야 한다. 기업은 계약 조건과 대체 조달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공급이 중단됐을 때

확보할 수 있는 물량과 조달에 걸리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대응 계획의 빈틈을 메꿀 수 있다.

이런 준비에 필요한 비용도 인정해야 한다. 비축과 대체 수송로 확보에 드는 지출은 공급 중단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한 투자다. 안정적인 공급을 요구하면서 조달 성과는 단기적인 비용 절감으로만 평가한다면 필요한 투자는 뒤로 밀리기 쉽다. 어떤 위험에 대비하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까지 정해야 공급망 강화 정책에 실행력이 생긴다.

에너지 안보의 성과는 위기에 드러나지만 이를 결정하는 것은 평상시의 선택이다. 유리한 계약을 맺는 데서 나아가 그 계약을 이행할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신뢰를 중요한 가치로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 상대를 선택하고 공급망에 투자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wkh@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7일 (음 8월 27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취

48년생 병세가 심각하니 스스로의 몸을 돌보세요. 60년생 자신의 실수로 비롯된 일입니다. 72년생 어려운 때를 만나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84년생 천천히 되집어 보세요.



소

49년생 체통을 잃으면서도 이득을 보려 하지 마세요. 61년생 희망 없는 일에 재물과 노력을 허비합니다. 73년생 아이를 출산하겠으나 태아가 허약합니다. 85년생 동남방이 길방입니다.



로랑서

50년생 어려운 일을 능히 이겨내기 좋은 일만 생깁니다. 62년생 소송이 있다면 승소할 수 있겠습니다. 74년생 고난이 따르게 되나 얻는 것이 많습니다. 86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도끼

51년생 동쪽 물가를 조심하세요. 63년생 구설수와 연행을 주의하세요. 75년생 막혔던 자금줄이 열리고 도움을 얻습니다. 87년생 자신의 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조

52년생 기분이 상쾌하고 좋은 날입니다. 64년생 대인관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76년생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법입니다. 88년생 할 일이 아직도 많으니 바쁘겠습니다.



뱀

53년생 스스로의 판단을 믿으셔야 합니다. 65년생 본인의 생각을 확실하게 밝히는 게 좋습니다. 77년생 부부, 이성과의 갈등이 우려되니 주의하세요. 89년생 불확실한 일은 추진하지 마세요.



말

54년생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66년생 낭비를 줄이고 더 검소한 생활이 필요합니다. 78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추진하세요. 90년생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양

55년생 계속 일을 추진하면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67년생 도움을 받아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잘 풀립니다. 79년생 직장에서 인정 받고 명예가 오릅니다. 91년생 금전운이 좋으니 이득이 있습니다.



원숭이

56년생 자신감 있게 추진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68년생 고생 끝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80년생 실천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세요. 92년생 금전운이 좋지 않으니 자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닭

57년생 유혹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9년생 직장운이 풀리니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81년생 동료나 친구와 협력하게 되고 일이 잘 풀립니다. 93년생 친구들과 만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개

58년생 명예가 오르는 길한 하루입니다. 70년생 부부와 가족간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82년생 사업운이 길하고 사세가 확장될 것입니다. 94년생 친구나 동료간에 사소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돼지

59년생 빌려준 돈이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71년생 희식이나 모임에 가면 행운이 있습니다. 83년생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95년생 지나친 음주나 과식은 금물입니다.



김상회의四季

부자와 빈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도 있지만 "부자들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판매하는 사람들이고 가난한 자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한 이가 있다. 라이너 지텔만의 말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으나 부자들의 심리에 관한 연구로 알가견이 있는 인물이다. 그의 저서 '부의 해부학'에서 그는 자본주의 옹호론자로 보인다. 부의 개념을 너무 통념적으로 해석한 것 아니냐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의 통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이 굶주리고 어렵게 사는 곳으로 대체로 아프리카를 떠올리지만 놀랍게도 20세기 세계 저래 빈곤 인구의 80%가 자본주의를 택하지 않았던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그의 통찰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부의 원인을 그처럼 사회과학적으로 추론하지는 못하지만 참으로 신기한 것은 사주팔자나 관상학적으로는 부자와 빈자를 판별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사주 상 재운이 확연한 이들은 관상학적으로도 그러하다.

그러나 재운이 좋더라도 다른 복도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즉, 재물 복은 좋은데 육친의 복이나 덕은 박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옛사람들은 큰 부자를 꿈꾸기보다는 복덕이 구축하기를 발원하곤 했는데, 이는 적당한 재물에 가족들이 화합하며 건강하게 평균 수명 정도의 천수를 누림을 말하는 것인데 실로 복덕이 구축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기에 그리 발원한 것이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가족의 안녕과 무탈함이 복덕구축의 으뜸이라 보아 항상 칠성님께 빌고 산신님께 빌곤 하였다. 칠월에는 칠월 칠석과 백중재가 있고 팔월 보름 추석은 산사람과 망자를 위한 기도가 함께 있다. 지구리는 별에 태어나 머리로는 하늘을 이고 발로는 땅을 딛고 천지인(天地人) 삼합의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08호	
일간 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12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학습법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결란스도쿠110

문제출제: 손호성

서울은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1	9	8	2	1	9	6	7
2	2	7	6	1	9	8	8	8
6	9	8	8	7	9	1	2	2
2	9	6	9	8	2	7	1	8
7	2	8	1	6	8	2	9	9
9	8	1	2	9	7	8	2	6
1	6	9	9	8	8	2	7	2
8	8	2	7	2	1	6	9	9
9	7	2	2	9	6	8	8	1

9	8	7	9	8	1	6	2	2
9	2	1	6	2	9	7	8	8
2	8	6	8	7	2	9	1	9
8	7	9	2	6	2	8	9	1
8	6	9	1	8	9	7	2	2
1	9	2	7	8	9	2	6	8
6	1	8	2	9	7	8	2	9
7	9	8	1	9	2	2	8	6
2	2	9	8	6	8	1	9	7

‘수시먹통·문항거래’ 도마에… 교육위 국감, 67개 기관 검증

오늘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수능문항거래, 대학 입시비리 등
유웨이 대표·조정식 등 증인채택
SNS 부작용 방지, AI챗봇 문제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올해 교육위 국감에서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와 수능 문항 거래 의혹을 비롯해 사학비리, 대학 입시 부정,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DT) 관련 법적 책임, 청소년 AI·SNS 부작용 등을 쟁점으로 다룬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위는 23일까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국립대 등 67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7일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를 시작으로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공공·관계 기관, 14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 16일 서울대 등 대학·대학병원, 20~21일 지방 교육청·국립대를 감사하고 23일 종합감사로 마무리한다. 일반 증인 19명과 참고인 4명 등 23명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국감장을 찾는다.

◆수시원서 접수장애, 유웨이측 출석

교육위는 오는 12일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장애 발생 경위와 연장 접수 과정, 피해 수험생 구제 문제 등을 물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유웨이 특별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TF를 꾸려 정시모집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같은 날 대교협 감사도 예정된 만큼, 대행

업체의 시스템 안정성뿐 아니라 교육부와 대교협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항 거래 의혹·통합수능 질의

7일에는 영어 강사 조정식 씨가 문항 거래 의혹 증인으로 나선다. 사업가 감배관 씨도 문항 거래 관행을 묻는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조 씨는 현직 교사 2명에게 영어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67차례에

걸쳐 약 835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씨 측은 지난 4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날 수학 강사 정승제 씨는 참고인 자격으로 202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되는 수학 문·이과 통합 출제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내년 치러지는 수능부터는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모든 수험생이 공통 과목을 치른다.

◆사학비리·재단 운영 점검

7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최용주 총장·조동성 발전자문위원장·주미연 지속경영본부장이 사학비리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해 국감에서 세종대 법인 대양학원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교육부는 올해 3월 대양학원과 세종대학교에 대한 재무감사를 진행했다. 주명건 대양학원 명예이사장은 23일 세종호텔 운영과 법인 자산 관리 실태를 놓고 증인석에 선다. 황문찬 학교법인 배재학당 이사장도 같은 날 재단 비리 의혹으로 증인 신문을 받는다.

◆입시 비리·AI·SNS 현안도

대학 입시 공정성 문제도 다룬다. 16일

에는 박미자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 음대 입시 비리 의혹 증인으로, 김상곤 한국성악가협회 이사장이 입시 부정 관행 참고인으로 나온다.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청소년 보호 문제도 국감에 오른다. 7일에는 박승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혁신연구본부장이 AIDT 국외 손해배상 소송의 법적 책임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재훈 바이트댄스 유한책임회사 대표(틱톡코리아 총괄)와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은 아동·청소년 SNS 부작용 방지 문제를 두고 질의에 답한다. 23일에는 김준윤 스캐터랩 대표·이세영 뽀빠테크놀로지스 대표·이관형 일레븐 대표가 청소년 AI 챗봇 서비스 문제로 증인석에 선다.

이밖에 7일에는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가 채용 과정의 학력 차별 문제와 관련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14일에는 배정이 경기 이음온학교 교감과 하미진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장이 하이러닝 특허 의혹과 관련해 출석한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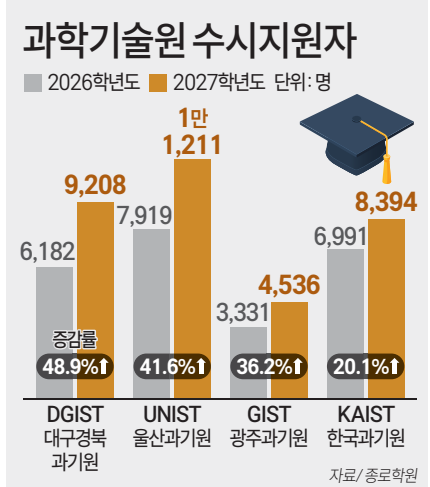


AI·반도체 열풍에 과기원 수시지원 역대최다

4개 과기원 수시 지원자 3만3349명
작년비 36.5% 증가… DGIST 49%↑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4개 과학기술원 지원자가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섰다. 입시업계는 AI 전공 신설로 모집인원이 늘어난 데다 반도체 계약학과 선호가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7학년도 국내 4개 과학기술원 수시 지원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과기원) 수시모집 지원자는 총 3만334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만4423명보다 8926명(36.5%) 늘었다. 4개 과기원 평균 경쟁률도 전년(14.14대1)보다 높은 16.13대1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DGIST 28.6대1, UNIST 19.84대1, GIST 14.40대1, KAIST 9.70대1 순이었다.



지원자 증가율은 DGIST가 가장 높았다. DGIST는 지난해 6182명에서 올해 9208명으로 지원자가 3026명(48.9%) 늘었다. UNIST는 7919명에서 1만2211명으로 3292명(41.6%), GIST는 3331명에서 4536명으로 1205명(36.2%), KAIST는 6991명에서 8394명으로 1403명(20.1%) 증가했다.

4개 과기원은 올해 AI 관련 전공을 신

설하면서 모집인원을 지난해보다 총 340명 늘렸다. DGIST·UNIST·GIST가 각각 100명, KAIST가 40명을 증원했다. 이에 따라 4개 과기원의 전체 모집인원은 1727명에서 2067명으로 확대됐다.

반도체 학과의 지원자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4개 과기원은 모두 삼성전자 연계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GIST 반도체공학과 지원자는 지난해 160명에서 올해 289명으로 80.6% 가장 크게 늘었다. 이어 DGIST 반도체공학과도 267명에서 411명으로 53.9% 증가했다. 경쟁률 역시 GIST는 6.40대 1에서 11.56대 1로, DGIST는 9.89대 1에서 15.22대 1로 올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AI 전공의 정원 확대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를 향한 이·공계 수험생들의 관심이 과기원 지원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임 대표는 “과기원 모집 정원, 지원자가 동시에 증가한 상황에서 의대, 다른 대학이 공계 관련학과 중복 합격도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중3 맞춤 진로상담… 대입개편 불안 최소화

서울시교육청, 1대1 상담센터 운영

대입제도 개편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상담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중3 집중진학상담센터’를 신설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연구정보원은 2028학년도 제도 개

편 및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학생들이 대입까지 이어지는 학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상담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7일간 1대1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총 350회 진행한다. 서울진로진학학업설계지원단 소속 교사들이 상담을 맡아 ▲고등학교 선택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대입 연계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등을 안내한다.

신청은 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에서 선착순으로 받으며, 대상은 서울 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중학교 3학년에서부터 학생의 진로 성장에 발맞춘 지속적인 진로진학·학업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부담 없이 진학 설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공교육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 늘고 전문대 줄었다

고등교육기관 유형·지역별 온도차
전문대 신입생 23.7%↓, 4년제 5배

학령인구 감소 속 고등교육기관 별 온도차가 뚜렷하다. 대학은 학교 수와 학생수가 증가한 반면, 전문대학은 학교와 학생이 모두 줄었다. 특히 비수도권 전문대학은 학생이 절반 넘게 줄어 학교 유형·지역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6일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6~21세)는 2000년 1138만 3000명에서 2025년 697만9000명으로 25년 새 440만4000명(38.7%) 줄었다.

4년제 대학과 전문·기능대학을 합친 신입생은 2016년 57만5000명에서 2023년 50만4000명으로 7년 새 7만1000명(12.3%) 줄었다. 학제별로는 4년제 대학이 35만5000명에서 33만8000명으로 4.8% 감소했다. 반면, 전문·기능대학은 21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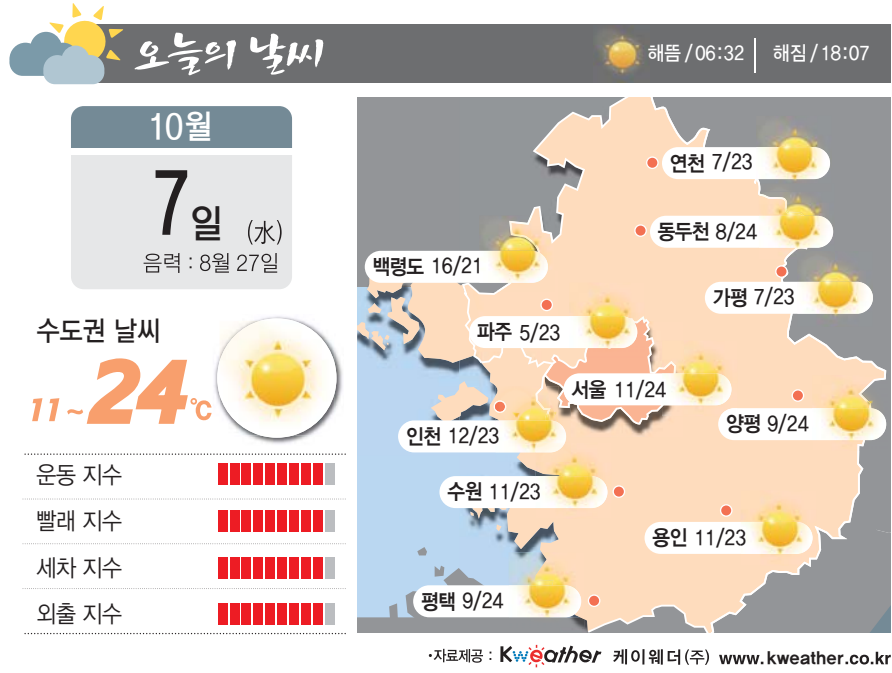
9000명에서 16만7000명으로 23.7% 줄어 감소율이 4년제 대학의 약 5배에 달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6일 발간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2026'에 따르면, 올해 기준 대학은 195개교로 2000년(191개교)보다 4개교(2.1%) 늘었다. 재적학생 수도 185만6927명에서 189만4516명으로 3만7589명(2.0%) 증가했다.

반면 전문대학은 2000년 158개교에서 32개교(20.3%) 줄어든 126개교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전문대 재적학생 수는 91만3273명에서 50만4897명으로 40만8376명(44.7%) 감소했다.

학교 수 감소는 비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비수도권 전문대학은 2000년 109개교에서 올해 84개교로 25개교(22.9%) 줄었고, 수도권 전문대학은 2000년 49개교에서 올해 42개교로 7개교(14.3%) 감소했다.

/김수정 기자



▲네팔, 대홍수 40일 만에 수색·구조 종료…재건 집중 /사진 뉴시스
▲中, 첫 해저 CO₂ 주입 플랫폼 건설…연 100만t 해저 저장

▲美 국무, 아이슬란드 방문…“안전한 북극·국방 협력 추진”
▲美 중간선거 변수로 떠오른 대법원…접전지 소송 판단 주목

▲전 미국군장관 “우크라이나, 적은 예산에도 더 나은 무기…변화 속도 굴욕적”
▲다카이치, G7 화상 정상회의 불참 논란에…“당일 급히 잡혀”



백화점 3사
외국인 매출 급증
콘텐츠 강화 나서
L1

metro®

Life

K-바이오
임상시험 넘어
현장 데이터 쌓는다
L2



“AI로 합격 예측·진로 컨설팅까지… 교육, ‘초개인화’ 전환”

속깊은 인터뷰

이병희

에듀테크 기업 ‘윈드폴리’ 대표

교육 현장이 격변기를 맞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 대학과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이를 준비하는 교육 시장은 여전히 ‘인강(인터넷 강의)’에 의존한 과목별 지식 습득에 머물러 있다. 수천, 수만 명의 학생이 저마다 다른 역량과 목표를 가지지만, 교육 서비스는 과거의 틀에 얽매인 매스에듀케이션(Mass Education) 방식을 고수한다.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편차도 커지고 있다. 충분한 재능과 역량을 가졌음에도 정보으로 원하는 대학에 원서도 넣어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흔하게 일어난다.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 개인의 성향과 목표, 성적에 맞춘 ‘초개인화 커리큘럼’이 절실한 상황이다.

에듀테크 기업 ‘윈드폴리’의 이병희 대표는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10월 ‘초개인화 AI 솔루션’을 시작한다. 기존에 갖고 있던 1대1 멘토링 플랫폼 ‘오디바이스’와 함께, AI를 기반으로 합격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진로·진학 설계 솔루션을 제공하는 새로운 플랫폼 ‘캐스트’를 론칭했다.

캐스트는 주요 대학들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신, 생기부, 모의고사, 수능 성적을 입력하면 대학별·학과별 합격 확률을 예측해 알려준다. 개인에 합격 확률이 높은 대학과 학과를 추천하고, 수시·정시 전형까지 개개인에 맞춘 구체적인 솔루션도 제공한다.

이병희 대표는 “1시간에 100만원에 호가하는 대입 컨설팅도 결국 얼마나 충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며 “AI 기술을 통해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초개인화 솔루션을 누구든 받아볼 수 있게 한다면 전국 모든 학생들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새로운 솔루션을 시작한 계기는.

“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했음에도 여전히 매스에듀케이션(Mass Education)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육을 초개인화 교육(Bespoke Education)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싶다. 학생들은 ‘만인만색(萬人萬色)’으로 저마다의 성향과 목표가 다르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 서비스는 초개인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하지 못한다. 특히 학교나 학부모의 세심한 서포트를 받기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은 맞춤형 진학·진로 관리를 받지 못해 입시 구조상 훨씬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 전문 입시 컨설팅은 왜 필요한가.

“대입 전황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 컨설턴트가 데이터를 분석해 학생 중심의 전략을 짜주는 컨설팅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고비용 구조 탓에 실제로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전체의 10% 안팎에 불과하다. 나머지 90% 이상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셈이다. 자신의 성적과 역량, 목표에 맞춰 어떤 선택과목이 들어야 하는지, 어느 대학과 학과에 합격 가능성이 높은지 알려주는 전문 가이드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데이터에 집중한 이유는.

“1시간에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에 호가하는 컨설팅도 결국은 데이터가 전부다. 이 데이터를 컨설팅



이병희 윈드폴리 대표가 메트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교육·입시, 정보 불균형 편차 커져
AI 기반 진로·진학 설계 플랫폼 선택

복잡한 대입전형에 전문 가이드 필요
AI 데이터로 정확도 높이고, 비용 낮춰
성적 분석해 대학 합격 가능성 예측

네이버 에듀에 대학 공식 데이터 제공
논술시험 예측 서비스 ‘논술 캐스트’
약술형·제시문 대학별 논술 맞춤분석

향후 취업 매칭까지 솔루션 영역 확대
인재 바르게 키우는 가치있는 기술로



트가 어떻게 풀어내는지 역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같은 데이터여도 컨설턴트 개인의 역량에 따라 ‘복불복’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계산식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가 오히려 더 정확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 캐스트에 대해 설명해달라.

“월 2만5000원 수준의 구독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상시적인 입시·진로 컨설팅 플랫폼이다. 학생이 내신, 모의고사, 수능 성적과 본인의 상황을 입력하면, 수많은 대학과 전형, 장학제도 데이터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학과 불리한 대학, 합격 가능성을 정밀하게 분석해 준다. 대학별, 학과별로 데이터를 넣으면 합격 가능성을 0~100%까지 정확한 수치로 보여준다. 기상에보 UI와 결합해 구름에 비, 구름 조금, 맑음 등으로 보여주어 직관적이다. 쉽고 명확한 예측이 가능하다.”

윈드폴리는 최근 네이버와 교육 데이터 관련 협업 계약을 맺었다. 네이버는 10월 교육 포털 ‘네이버 에듀(NAVER EDU)’를 새롭게 론칭하고, 기존 교육 검색 서비스 범위를 대학 학과와 수시·정시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네이버 에듀에서 검색되는 대학 데이터는 윈드폴리에서 제공한다.

윈드폴리의 입시·진로 컨설팅 서비스도 지속 확장될 예정이다. 윈드폴리는 대입 과정에서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논술 시험 합격 예측 서비스인 ‘논술 캐스트’도 새롭게 시작한다.

- 네이버와의 협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네이버도 수도권과 지역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 포털을 론칭하고 그 안에 우리 데이터를 공식 제공한다. 교육 정보는 과목 선택과 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데이터 신뢰도가 특히 중요한 분야다. 네이버 에듀를 통해 보여지는 주요 진학과 진로 데이터에 전부 윈드폴리 제공 표시가 붙게 된다.”

- 논술 캐스트에 대한 관심도 높다.

“최근 수시 입시에서 약술형 논술과 제시문 논술의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서울 및 수도권 이외 지역 학생들은 이를 준비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윈

드폴리의 논술 캐스트는 대학별 출제 유형과 평가 기준을 정밀 분석해 맞춤형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한다. 가령 한양대학교 유형의 논술 문제를 구매해 답안을 작성하고 제출(Submit)을 누르면, AI가 한양대의 배점 기준에 맞춰 항목별 피드백과 점수, 그리고 최종 합격 확률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막연했던 논술 준비 과정에서 본인에게 진짜 유리한 전형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이후 해당 대학에 실제 합격한 대학생 멘토의 1:1 멘토링까지 연계하면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 교육 시장에 많은 변화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고가의 컨설팅 비용도 그렇지만, 무작정 학원 수업을 더 듣고 인강을 추가하는 방식의 사교육비 지출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명확한 계획이나 진단 없이 불안감에서 비롯된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AI의 정확한 성적 분석과 멘토의 체계적인 설계가 더해지면, EBS 무료 인강이나 기존 콘텐츠만 활용해도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다. 월 2만 5000원의 구독료와 멘토 비용을 더해 한 달 15만 원 안팎의 비용만으로도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 모델이 완성된다.”

윈드폴리는 향후 합격 예측과 데이터 솔루션 영역을 교육뿐 아니라 ‘취업’까지 확대한다. 취업 시장은 각종 자격증과 언어능력, 면접 등 준비 과정이 더욱 길고 복잡해지는 또 다른 영역이다. 이병희 대표는 교육 시장보다 취업 시장이 훨씬 크다고 판단해 같은 솔루션을 취업 영역까지 확장하기로 했다. 사람의 재능과 경험을 기술로 연결해 ‘Human Potential Maximizer(개인 잠재력 극대화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다.

- ‘취업’ 영역까지 AI 솔루션을 확대하는 건가.

“과거와 달리 이제는 명문대 합격이 취업과 미래를 보장하기 어렵다. 대학 합격 이후에도 면접, 자격증, 과외 등 취업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과 수험 기간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이 문제 역시 대입과 동일한 공식을 적용해 개인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취업 준비생을 중심으로 두고, 대학에서의 학점과 활동 내역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개인별로 가장 적합한 직무를 찾아주고, 합격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연동된 채용 공고를 AI가 찾아주고 직접 연결할 수도 있다. 또 기존 오디바이스를 통해 활동했던 대학생 멘토들이 사회에 진출한 이후, 이들을 취준생과 다시 연결해 주는, 현직자 멘토링 생태계로 확장도 가능하다.”

- 앞으로 윈드폴리가 나아갈 방향은.

“해외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이제는 시험 답안지나 완성된 포트폴리오만으로 학생을 평가하지 않는다. 학생이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는지,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시 설명할 수 있는지를 글과 말로 표현하는 역량을 더 높이 평가하는 시대다. AI가 누구에게나 그럴듯한 답을 만들어주는 시대일수록 오히려 ‘진짜’가 더 중요해진다. 윈드폴리는 학생들이 바로 그 ‘진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회사가 되고자 한다.

AI 기술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 우리의 역할은 AI를 통해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개인의 선택지를 넓혀줌으로써, 불필요한 줄세우기 경쟁에서 벗어나 각자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한 명의 학생, 한 명의 인재를 바르게 키워내는 데 기술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KT, 2027 신인 선수 11명 계약 완료…1R 이승원과 2억5000만원에 사인
▲김재열 ISU 회장, 동계올림픽연맹 회장 선출…7개 종목 연맹 이끈다

/사진 뉴스스

▲대한체육회 선수위, 유도 정수진 ‘AG 체계 탈락’ 관련 진상 규명 촉구
▲‘한국 최초 유럽 데뷔’ 메조소프라노 김청자 별세

▲“6개 점이 세상 바뀌어”…한글 점자 ‘훈맹정음’ 100주년 특별전
▲조선왕실로 시간여행…가을 궁중문화축전 D-DAY